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82호 【루계 제24860호】 주체104(2015)년 3월 23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열풍으로 끓어번진다

과학기술전당건설장에서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희한한 건축물인 과학기술전당이 일떠서는 대동강의 쑥섬지구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떨쳐나선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의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불도가니마냥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지난해 쑥섬을 돌아보시면서 과학기술전당건설을 몸소 발기하시고 이곳을 과학의 섬으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2월말 찬바람부는 건설장을 또다시 찾아주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과학기술전당건설을 당창건 70돐까지 무조건 끝낼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은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 이것이 당에 대한 충정의 가장 뚜렷한 표시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신념으로 간직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군민궐기모임을 통해 활화산처럼 분출된 전체 건설자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의에 맞게 중앙지휘부에서는 공사지휘력량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협의회를 기동적으로 진행하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고있다.

각 시공단위 책임일군들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기수, 전위투사라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공사와 관련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직접 틀어쥐고 완강하게 내밀고있다.

붉은기가 세차게 휘날리고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북소리가 높이 울려퍼지는 속에 대상건설장들에서는 만사람을 격동시키는 자랑찬 로력적위훈이 창조되고있다.

과학기술전당건축공사를 맡은 군인건설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할 불타는 일념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 공사를 다그칠수 있는 혁신적인 공법을 창안도입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전개해나가고있다.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폭풍처럼 내달려 최상의 문명, 최상의 속도를 창조할 비상한 각오를 안고 한겨울의 추위속에서도 방대한 기초굴착공사를 불이 번쩍 일게 끝낸 군인건설자들은 기세충천하여 지하층휘틀조립과 철근가공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일으키고있다.

쑥섬호안공사를 맡은 군인건설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몸이 열조각, 백조각이 나는 한이 있어도 기어이 관철하고야말 불타는 충정과 결사관철의 의지를 안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전구간의 콩크리트포장층과 석축을 해체하고 수많은 석축용뚝돌을 생산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기수, 본보기답게 과학기술전당건설장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떨쳐가는 군인건설자들의 투쟁기풍, 투쟁본때를 본받아 각 시공단위들에서도 맡은 공사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며 총공격전의 진군가를 높이 울리고있다.

쑥섬인입다리—1건설을 맡은 륙해운성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높이 지펴올리며 불과 2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만㎥의 토량을 처리하고 가물막이공사와 다리기둥기초굴착공사를 끝낸데 이어 침강정휘틀제작과 철근가공전투를 립체적으로 힘있게 내밀고있다. 성의 일군들은 현장속보판과 방송선전차활동 등 여러가지 형식의 화선식정치사업으로 건설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는 한편 로력과 설비를 집중시키고 필요한 연유와 자재보장을 제때에 따라세워 전투장마다에서 날에날마다 새로운 혁신이 창조되도록 하고있다.

철도성의 일군들과 건설자들도 쑥섬인입다리—2건설에서 맹렬한 돌격전을 들이대며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일군들은 현장에서 전투조직과 지휘를 패기있게 진행하여 굴착기, 기중기차 등 기계설비들을 공사장에 집중시키고 앞선 공법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다리공사를 공정계획대로 내밀수 있게 하고있다.

쑥섬인입다리—3건설과 하부시설공사를 맡은 수도건설위원회 건설자들은 오늘의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의 열풍속에 영예로운 위훈자로 자랑떨칠 드높은 각오와 열의밑에 대상공사장마다에서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가물막이와 다리기둥기초굴착공사를 동시에 밀고나가 제기일에 완수한 위원회의 건설자들은 련이어 다리기초콩크리트치기를 다그치는 한편 지열취수뽐프장, 오수뽐프장굴착을 끝낸 기세를 늦추지 않고 하부시설공사에도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분수공원과 과학기술상징탑, 쑥섬1다리공사를 맡은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 일군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은 당의 부름에 피끓는 청춘의 심장을 바치고 불같이 웨치며 차거운 감탕속에서도 다리기초굴착과제를 앞당겨 끝내고 가물막이공사를 마감단계에서 와닥닥 다그치고있다. 이밖에도 혁명사적지건설지도국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맡은 대상공사를 하루빨리 앞당겨 끝낼 불같은 열의밑에 기초콩크리트치기와 동시에 철근가공, 바닥성토다짐작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평양시인민위원회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오늘의 평양정신, 평양속도를 창조하여 평양시가 모든 면에서 전국의 앞장에 설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무궤도전차로선공사를 비롯한 맡은 과업수행에서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수놓아가고있다. 무궤도전차로선의 힘전주세우기공사를 맡은 수도려객운수국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사상을 앞장에서 받들어간다는 높은 긍지와 책임감을 안고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구호높이 모든 일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온 건설장에 대혁신, 대비약의 열풍이 굽이치고있는데 맞게 자재보장을 맡은 기계공업성, 화학공업성, 채취공업성, 전자공업성을 비롯한 여러 성들과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평양326전선공장 등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련대적혁신의 불길을 높이 지펴올리고있다. 오석산화강석광산을 비롯한 돌생산보장단위들에서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불꽃튀는 전투의 낮과 밤을 이어가고있다.

여러 대상건설이 본격적인 단계에서 벌어지고있는 가운데 원림공사도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원림공사에 동원된 성, 중앙기관 정무원들은 수천㎡의 지대정리를 다그치고 15종에 3천여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와 꽃관목을 마련하여 들끓는 건설장에 이채로운 풍경을 펼쳐가고있다. 쑥섬에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희한한 건축물을 일떠세워 평양시의 면모를 더욱 웅장화려하게 하며 과학의 힘으로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조선의 결심을 온 세상에 다시금 보여주자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각 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도 수종이 좋은 많은 키큰 나무와 꽃관목들을 과학기술전당건설장에 성의껏 보내왔다.

과학기술전당건설장으로는 온 나라 인민의 뜨거운 지원의 마음이 끝없이 달려오고있다.

대외경제성과 보건성, 경공업성, 녀맹중앙위원회를 비롯하여 성, 중앙기관 그리고 전국각지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들을 안고 찾아와 건설자들의 투쟁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고무해주고있다.

당에서 벽을 울리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강산을 진감시키는 천만군민의 불굴의 정신력과 헌신적투쟁에 의해 지금 쑥섬은 하루가 다르게 과학의 섬으로서의 면모를 펼쳐보이고있다.

글 특파기자 최수복
사진 본사기자 김광혁

전군중적운동으로 물확보투쟁을 힘있게 벌리자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세포등판의 계단식저류지건설 완공

세포지구 대규모축산기지건설을 다그칠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평강군사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석달 남짓한 기간에 15만㎥의 토량을 처리하고 7 000여㎥의 돌을 쌓으면서 능력이 큰 계단식저류지를 훌륭히 완공하였다.

저류지가 건설됨으로써 평강군 송포리일대의 축산기지들에서 집짐승사양관리와 풀판관수를 과학기술적요구대로 할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을 받들고 세포등판개간전투장으로 용약달려간 인민군군인들과 돌격대원들은 올해전투에서 새로운 기적과 영웅적위훈을 창조하여 당의 대자연개조구상을 앞당겨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아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투적과업을 받아안은 평강군사단 일군들은 즉시 그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갔다.

일군들이 설계가들과 함께 현지를 답사하면서 저류지적지를 찾기 위해 뛰고뛰였다. 그 과정에 해발고가 수백m나 되는 송포리 구릉지대의 풀판들에서 양수기를 리용하지 않고도 물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저류지위치를 찾아냈다.

일군들은 저류지건설과 관련한 설계를 다그치도록 하는 한편 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당이 정해준 시간에 당이 내세운 목표를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와 배짱을 안고 승리의 시간표를 설정한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총진군의 나팔소리를 높이 울리며 시작부터 백절불굴의 투지를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1, 2, 3, 4호저류지바닥파기공사를 맡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개척자들의 슬기와 용맹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한겨울에 진펄을 개간해야 하는 자연과의 대결전에 뛰여든 이들은 진펄에 흙과 돌을 날라다 도로를 새로 닦으면서 굴착기와 불도젤들을 들이밀어 굴착전투를 벌리였다. 이들의 완강한 공격정신에 의하여 두달 남짓한 사이에 방대한 저류지바닥파기공사가 성과적으로 끝났다.

평안북도려단에서는 공사량이 방대한데 맞게 륜전기재들에 대한 수리정비를 사전에 면밀히 진행하여 그 가동률을 높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로력과 운반수단을 집중하여 토량처리와 석축공사를 힘있게 내밀었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륜전기재의 가동률을 높이면서 함마와 정대로 언땅을 까내고 등짐으로 흙과 돌을 날라 쌓아나갔다.

라선시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도 단숨에의 공격정신으로 공사를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밀고나갔다. 돌보장이자 공사속도라는것을 명심한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수십리 떨어진 곳에 나가 많은 돌을 채취하였다. 그리하여 석축공사를 짧은 기간에 불이 번쩍 나게 끝낼수 있었다.

함경북도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도 석축공사와 방수로공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해 아글타글 애썼다.

공사기간 사단에서는 각 려단들에서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고 화선선동, 축하방송으로 공사장을 들끓게 하여 돌격대원들의 사기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날마다 비약을 일으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투쟁에 의하여 진펄자리에 축산기지운영과 풀판관수에 리용될 계단식저류지가 훌륭히 일떠섰다.

본사기자 정성일

1.4분기생산계획 빛나게 수행

안주뽐프공장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 떨쳐나선 안주뽐프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2월 20일까지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공업총생산액적으로 넘쳐 수행한데 이어 지난 15일까지 지표별뽐프생산계획을 결속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공장의 일군들은 생산자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생산활성화의 중심고리를 바로 정하고 여기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현행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특히 사회주의경쟁운동을 생산자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 로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열의를 최대한으로 불러일으켰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참모부에서는 자재관리, 전력관리사업에 모를 박고 혁신적으로 전개해나갔다. 직장들에서 내부예비동원사업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일군들이 직접 각 단위들에 나가 필요한 원료, 자재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전격적으로 벌리였다.

당창건 일흔돐전으로 년간뽐프생산계획을 앞당겨 완수할 목표를 내세운 공장의 로동계급이 일터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생산의 첫 공정을 맡은 주물직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주물품의 질보장을 첫자리에 놓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드는 한편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이면서 매일 맡겨진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청년가공직장 로동자, 기술자들은 설비들에 여러가지 지구들을 창안도입함으로써 종전에 비해 부분품가공시간을 훨씬 줄이고 정밀도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였다. 청년조립직장에서도 완성된 부분품들이 넘어오는족족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 조립성과를 확대해나갔다.

전투장마다에서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 화선식경제선동의 북소리가 힘있게 울려퍼지고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미풍이 높이 발휘되는 속에 소재생산 및 가공, 조립 등 모든 전투장들에서 련일 새 기준, 새 기록이 창조되였다.

기적창조의 근본열쇠를 대중의 정신력발동에서 찾은 이곳 일군들은 실정에 맞게 직장별, 작업반별, 개인별사회주의경쟁을 보다 심화시키는 한편 내부예비동원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생산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또한 주물품생산과 가공, 조립 등 공정간 맞물림을 구체적으로 짜고들고 집중생산방법을 받아들여 맡겨진 2월 뽐프생산계획을 130%이상 넘쳐 수행함으로써 1.4분기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계획수행기간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위력이 뚜렷이 과시되였다.

공장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일떠세운 5중열풍식용선로를 비롯한 에네르기절약형의 생산설비들에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함으로써 전력과 자재보장조건이 어려운 속에서도 지난 시기에 비해 주물품생산을 크게 늘이였으며 중요대상건설장들과 물확보투쟁으로 들끓는 협동농장들에 많은 량의 뽐프를 생산하여 보내주었다.

본사기자 류성국

연 2천여km의 물길을 정리

강원도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올해 농사를 잘 짓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강원도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물길정리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도안의 농촌들에서 농사에 필요한 물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연 2천여km의 물길을 정리하는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 물절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영농물자를 원만히 보장하며 생산조직과 지도를 실정에 맞게 하여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고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올해농사에서 대비약, 대혁신이 일어나도록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농촌경리위원회의 일군들은 시, 군들을 맡고나가 현실을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걸린 문제를 알아보고 풀어주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었다. 일군들은 도적인 물길정리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계획된 날자보다 앞당겨 맡은 물길정리를 끝내도록 하였다.

특히 지난해 가물과의 투쟁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모든 력량을 총동원하여 한방울의 물도 허실없이 농업생산에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농사에서 기본인 물문제를 보다 원만히 풀기 위한 사업에 힘을 집중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천내군에서는 3천여㎥의 흙을 처리하고 1천여㎡의 면적에 장석공사를 진행하였으며 45km구간의 물길을 정리하였다. 군에서는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단위별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짧은 기일에 계획한 물길정리공사를 끝내였다.

원산시에서도 일군들이 현지에서 협의회를 조직하고 조직사업을 짜고든 결과 가물이 계속되여도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수 있게 물길정리를 질적으로 끝내였다.

회양군에서는 수km구간의 물길을 새롭게 건설할 목표를 세우고 대중을 불러일으켜 100여정보에 달하는 면적에 물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문천시와 안변군, 통천군과 창도군을 비롯한 다른 군의 협동농장들에서도 물길정리사업을 힘있게 벌려 한방울의 물도 허실없이 농업생산에 리용할수 있게 하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황해남도의 드넓은 사회주의협동벌에서 벼모판씨뿌리기가 시작되였다.

도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기본수원지의 물량이 부족한 조건에서 수만개의 보조수원지를 건설하고 리용하여 당면한 벼모판씨뿌리기를 일정계획대로 진척시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농사에서 물은 금과 같이 귀중하다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도에서는 물확보를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특히 벼모판씨뿌리기와 모기르기, 모내기에 필요한 물을 보조수원지를 리용하여 해결할 통이 큰 계획밑에 곳곳에 지하저수지와 저류지, 하천보막이, 굴포와 졸짱, 우물 등 보조수원지를 대대적으로 건설하였다.

보조수원지를 건설할수 없는 곳에는 서해갑문—신천—강령, 옹진물길과 례성강물길, 일부 저수지물길을 새롭게 정리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세웠다.

결과 도에서는 봄철영농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5만여개의 보조수원지를 건설하고 수백리의 물길을 정리하였다.

영양단지모에 의한 논벼소식재배와 같은 물절약형농법을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마련한 도에서는 보조수원지를 적극 리용하여 벼모판씨뿌리기를 다그쳐 끝내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따라세우고있다.

벽성군 옥정협동농장에서 씨뿌리기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되였다. 여기에서는 물절약형농법을 실현하기 위한 벼모판씨뿌리기의 기술적요구와 우물과 졸짱 등 보조수원지의 리용문제가 특별히 강조되였다.

보여주기사업에 이어 일군들은 도적으로 많은 면적에서 영양단지모에 의한 논벼소식재배방법을 적용하고있는 조건에 맞게 들끓는 협동벌들에 나가 기술지도를 강화하고있다.

도안의 농촌들에서 실정에 맞게 일정계획을 바로세우고 일제히 벼모판씨뿌리기에 들어갔다.

앞선 논벼재배방법과 일기조건, 벼품종별에 따르는 모내기날자 등을 타산하여 씨뿌리기일정계획을 면밀히 세운 도안의 령도업적단위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기술적요구대로 단지모판을 만들고 씨뿌림상태를 정확히 따지면서 일을 깐지게 하고있다.

도안의 다른 협동농장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싹틔우기를 기술적요구대로 하면서 동시에 감이 드는 차제로 모판만들기를 하고 정성껏 씨앗을 뿌리고있다.

삼천군을 비롯하여 연안, 배천군 등 도안의 모든 군협동농장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이미 마련한 수만개의 보조수원지의 물을 리용하여 계획된 모판면적의 씨뿌리기를 적기에 끝낼 결의밑에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벼모판씨뿌리기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농업부문에 경제선동의 화력을 집중함으로써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더욱 높여주고있다.

특파기자 리승철

씨뿌리기에 수만개의 보조수원지 리용

황해남도의 농촌들에서

선천군 석화협동농장에서 저류지건설에 힘을 넣고있다. 본사기자 정영철 찍음

지원의 뜻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자

조선국민회결성기념일을 맞으며

반제자주, 민족단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봉화혁명사적지를 찾아서

우리가 탄 취재차는 강동읍을 가까이하고 달리였다. 차창너머 봉화산의 웅자가 비껴왔다. 그 옛날 외적의 침입을 알리기 위해 봉화를 올리던 곳이라는데로부터 유래된 그 이름이 언제부터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소중히 자리잡았던가.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발자취가 새겨진 그날부터였다. 나라의 독립과 무산민중의 해방을 위해 력사의 새벽길을 걸으시며 자주독립의 불길을 지펴올리신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업적과 더불어 봉화산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여 빛나고있는것이다.

조선국민회결성기념일을 맞으며 봉화혁명사적지를 찾는 참관자들의 대렬이 끊임없이 이어지고있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김형직선생님의 동상앞에서 경건히 걸음을 멈추었다. 왼손을 교탁에 올려놓으시고 오른손에 책을 펼쳐드신 선생님의 모습에는 나라의 독립은 오직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시고 지도하신 열렬한 애국자, 강의한 혁명가로서의 풍모가 어려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조선국민회는 전체 조선민족이 일치단결하여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며 참다운 문명국가를 세울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로서 3.1인민봉기를 전후한 시기 조선의 애국자들이 무은 국내외의 조직들가운데서도 가장 규모가 큰 반일지하혁명조직의 하나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혁명활동의 중심지를 강동으로 옮기신 때는 주체5(1916)년 3월이였다.

우리에게는 김형직선생님께서 부모님들에게 하신 말씀이 되새겨졌다.

나라를 독립시키지 못할바에야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내 몸이 찢기여 가루가 될지언정 일본놈들과 싸워 이겨야 하겠습니다. 내가 싸우다 쓰러지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싸우다 못하면 손자가 싸워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나라의 독립을 성취하여야 합니다. …

숭실중학교를 중퇴하신 선생님께서 만경대에 이어 봉화리로 혁명활동무대를 옮기신것도 지원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김형직선생님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명신학교앞에 이르렀다. 조국해방의 밝은 새날을 앞당겨올 후대들을 키운다는 뜻에서 선생님께서 지으신 학교명칭이였다. 교실의 앞벽면에 걸려있는 지원의 글발이 하많은 이야기를 전하며 빛나고있었다.

교탁우에 놓여있는 종을 바라보느라니 사람은 배워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야 혁명의 길에 나설수 있으며 또 혁명을 해야 나라를 찾을수 있다고 하시면서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배움의 넋을 심어주시던 선생님의 다정하신 음성이 들려오는듯싶었다.

벽에는 조선지도가 걸려있었다. 그 지도를 가리키시며 오곡백과 무르익고 금은보화 가득찬 살기 좋은 우리 나라를 찾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하고 힘도 빨리 키워야 한다고 하시던 선생님의 모습을 참관자들의 가슴에 소중히 새겨주는 귀중한 사적물이였다.

바로 이 학교에서 김형직선생님께서 주체6(1917)년 가을 수업도중 갑자기 달려든 일제경찰놈들에게 체포되시였다고 강사는 말하였다.

언제인가 봉화혁명사적지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형직선생님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공적의 하나가 지원의 사상을 내놓으시고 그 사상으로 후대들을 교육교양하신것이라고 하시면서 명신학교는 지원의 사상과 더불어 길이 빛날 력사의 집이라고 교시하시였다.

학교뒤에는 돌기와를 얹은 살림집 한채가 옛 모습대로 서있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 봉화리로 이사오신 일가분들과 함께 계시면서 혁명활동을 벌리신 집이였다. 선생님께서는 이 집에 계실 때인 주체6(1917)년 3월 23일 평양 학당골에 나가시여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시였다. 그후 선생님께서는 봉화리를 지휘처로 정하시고 조선국민회조직을 전국각지로 확대해나가시였다.

봉화혁명사적지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전에 봉화리로는 아버님의 지도를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군 했는데 밤에 산길을 타고오느라고 바지가랭이가 다 젖어오면 어머님께서는 그들의 옷을 갈아입히시고 젖은 옷을 가져다 빨아 말리워주군 하시였다고 뜨겁게 회고하시였다.

노전이 깔린 아래방에는 해방전 이 나라의 가정들에서 흔히 볼수 있었던 수수한 농이 놓여있었다. 강사는 강반석어머님께서 비밀문건을 내놓으라고 야단치는 일제경찰놈들에게 저 농안에서 옷가지들을 꺼내시여 쭉쭉 찢어 내던지시면서 자, 볼테면 보라고 하시며 완강하게 맞서싸우시였다고 하였다.

부엌에는 어머님께서 리용하시던 살림도구들이 전시되여있었다. 반동이를 가리키며 강사는 어머님께서는 때없이 찾아오는 동지들에게 저 동이로 물을 길어다 밥도 해주시고 젖은 신발과 버선을 빨아 말리워주군 하시였다고 이야기하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체포되여가시면서 전하신 글쪽지를 받으신 어머님께서 어리신 수령님과 함께 비밀문건을 불태우시였던 아궁이도 참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살림집옆에 있는 허청간에는 베틀과 물레, 나무절구 등이 있었다.

베틀에 앉으시여 밤을 새워가시며 짜신 무명천으로 옷이 없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옷을 해입히시던 어머님의 모습이며 김형직선생님께서 밤에 동지들과 회합을 가지실 때마다 나무절구를 명신학교앞길에 내다놓으시고 보리를 찧으시면서 망을 보시던 어머님의 모습을 혁명사적물들은 사연깊이 전하고있었다.

참관자들과 함께 살림집뒤에 있는 바위우에 올라서니 나무굴뚝옆 지붕우에 흰 줄로 삼각표식을 한것이 보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비밀문건을 보관하셨던 장소였다. 그 위치도 봉화혁명사적지를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고증해주시였다고 강사는 말하였다.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의 투쟁이야기를 깊은 감명속에 되새기며 우리는 박우물을 거쳐 봉화산기슭에 있는 집앞에 이르렀다. 배나무집이라고 불리우는 그 집은 봉화리에 오신 김형직선생님께서 두번째로 계시면서 혁명활동을 벌리신 집이였다.

강사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는 봉화산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큼직한 판돌들이 깔려있는 길을 따라 걷는 우리의 귀전에 봄바람에 솔숲이 설레이는 소리, 이 나무, 저 나무로 옮겨앉으며 우짖는 산새들의 지저귐이 들려왔다.

김형직선생님께서 학생들의 체력을 단련시키시던 아침운동터를 지나 산중턱에 이르니 봉화산비밀회의장소가 있었다.

평양에서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몇달후에 조선국민회 구역장, 통신원, 련락원들의 비밀모임을 이곳에서 진행하시였다.

뜻깊은 그날의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가 그곳에 모셔져있었다.

선생님께서는 모임에서 조선국민회를 결성한 후 이룩된 가장 큰 성과의 하나가 국내외로 조직을 확대할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마련된것이라고 하시면서 준비된 회원들을 중심으로 새 조직을 계속 내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일제와 맞서 싸우자면 하루아침에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질수 있고 낯설은 이역땅에서 무주고혼이 될수도 있다는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혁명가에게는 송죽같은 절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모임을 마치신 선생님께서는 동지들을 여러곳으로 떠나보내시는 한편 자신께서는 은률과 재령을 거쳐 나라의 남쪽인 보성, 마산에까지 나가시여 조선국민회 지부조직들을 내오시였다.

자신을 생각하기에 앞서 겨레를 생각하시고 가정을 생각하기에 앞서 조국을 먼저 생각하시며 찬바람을 맞받아 쉬임없이 걸으신 김형직선생님의 정력적인 투쟁에 의하여 조선국민회는 결성된지 불과 반년 남짓한 기간에 국내외의 넓은 지역에까지 확대되게 되였다.

반제자주, 민족단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력사의 새벽길을 헤쳐가신 김형직선생님의 체취가 이르는 곳마다에 뜨겁게 어려있는 력사의 땅 봉화리,

봉화혁명사적지를 돌아보며 우리는 절세의 위인들을 높이 모시여 지원의 사상이 대를 이어 계승되고 꽃펴나고 있음을 가슴벅차게 느끼였다.

본사기자 김승표

대를 이어 싸워서도

천만군민의 마음속에는 오늘도 남산의 푸른 소나무가 설레이고있다.

세월은 흘러가도 푸르름을 변치 않는 남산의 그 소나무는 우리에게 무엇을 속삭여주는것인가.

혁명은 대를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김형직선생님의 지원의 사상은 오늘도 천만군민의 가슴을 억세게 틀어잡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혁명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해도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야 합니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남산을 바라보면 김형직선생님께서 지으신 시 《남산의 푸른 소나무》부터 생각난다고, 그 시에서 제일 가슴을 울리는것은 3련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용히 그 대목을 읊기 시작하시였다. 그이께서 얼마나 절절하게 시를 읊으시는지 일군들도 자연히 시의 세계에 끌려들어갔다.

이윽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구절구절 되새겨볼수록 조선의 독립을 기어이 이룩하려는 김형직선생님의 불굴의 의지와 신념이 가슴뜨겁게 어려온다고 추억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지원의 사상으로 일관된 절세위인들의 거룩한 한생을 돌이켜보시는가 그이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

일군들은 숭엄한 감정에 휩싸였다.

혁명은 한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완성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바로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심원한 진리를 시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 피력하시였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원의 높은 뜻을 받들어 강도 일제와 침략자 미제를 때려부시고 이 땅에 사회주의조선을 일떠세우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이 혁명의 철리를 가슴에 새겨안으시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시기 위해 불철주야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끝없이 이어오시지 않았던가.

대를 이어 싸워서도!

그것은 단순한 시구절이 아니였다.

세월은 흐르고 혁명의 대는 바뀌고있다. 천만군민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불타는 열의밑에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섰다.

들려온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리상과 념원을 이 땅우에 더욱 활짝 꽃피우실 일념을 안으시고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격전장들에 울려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자욱소리가.

오늘도 계속되는 혁명의 길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그처럼 바라시던 강성국가를 이 땅우에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

본사기자 김철혁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쌓으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간다.
—학당골혁명사적지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조선국민회조직분포도앞에서

얼마전 우리가 봉화리혁명박물관을 찾았을 때였다.

5호실에 들어선 우리의 눈앞에 하나의 지도가 안겨왔다. 옹근 한벽면을 꽉 채운 조선국민회조직분포도였다. 이 분포도는 조선국민회의 결성장소와 지휘처 그리고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선국민회조직결성을 지도하신 로정, 조선국민회 주요조직들을 한눈에 찾아볼수 있게 되여있었다.

우리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1910년대 후반기 더욱 악랄해지는 일제의 탄압을 물리치고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시고 저렇듯 많은 조직들을 확대해나가시였다고 생각하니 가슴은 뜨거워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국민회는 〈한일합병〉후 여러해동안 국내와 해외에서 아버지가 벌려온 정열적인 조직선전활동의 총화였다.》

분포도의 오른쪽에 씌여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가 어찌하여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있는것인가.

붉은 오각별들이 수없이 표시된 분포도는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한생을 깡그리 바치신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전하여주고있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온 민족을 하나의 자주력량으로 묶어세울 결심을 품으시고 강력한 반일지하혁명조직을 내오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리시였다.

지원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펼쳐가시는 길에서 동지획득과 민중계몽에 관한 방략을 제시하신 선생님께서는 한사람한사람의 혁명동지들을 찾아 조직의 핵심골간으로 키우시였으며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민족자주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반일성전에 불러일으킴으로써 마침내 조선국민회결성을 안아오시였다.

조선국민회는 전체 조선민족이 일치단결하여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민족해방위업을 성취하고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참다운 문명국가를 세우는것을 목표로 내세운 비밀결사로서 우리 나라에서 3.1인민봉기를 전후한 시기 국내외를 포괄한 가장 큰 반일지하혁명조직이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봉화리를 조선국민회의 지휘처로 삼으시고 그 하부조직들을 급속히 확대해나가시였다.

평안남북도의 넓은 지역들에서 조선국민회조직을 확대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밀고나가기 위한 귀중한 경험을 마련하신 선생님께서는 황해도 수안, 황주, 사리원일대에도 나가시여 지부들을 결성하신데 이어 룡강, 남포, 은률, 해주, 태탄, 재령지부 등을 무으시였다. 그리고 삼남지방에 조선국민회 지부조직을 내오기 위해 전라도에로의 초행길을 걸으시였다. 선생님의 이렇듯 정력적인 활동과 지도에 의하여 조선국민회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급속히 확대되여 자기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벌리였다.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하여 옥중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역경속에서도 선생님께서는 외부에 있는 동지들과 련계를 맺으시고 그들이 조직을 끝까지 지켜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출옥후 그이께서는 자신의 몸을 추세울 사이없이 파괴된 조직들을 복구정비해나가시였으며 그 나날에 중강, 강계, 포평, 회령, 원산, 안변 등 여러 지역들에서 새로운 조직들을 무으시였다.

우리와 함께 봉화리혁명박물관을 찾은 참관자들은 그 분포도를 보며 좀처럼 걸음을 옮기지 못하였다.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총검의 숲을 헤치시며 낮에도 밤에도, 겨울에도 여름에도 쉬임없이 걷고걸으신 김형직선생님의 끝없는 로고와 헌신의 자욱자욱이 뜨겁게 어려와서이다.

김형직선생님께서 헤쳐가신 그 길이 어떻게 조국해방의 새아침으로 이어졌고 세월이 흐를수록 조선의 오늘을 안아온 력사의 새벽길로 더욱 빛나고있는가를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본사기자 림정호

《짓밟힌 동포야 일어나거라》

청수동회의에서 새로운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하여 벽동에서 반일운동자들과의 모임을 가지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완월루에 오르시였다.

그 옛날 나라의 변강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장수들이 달구경을 즐기였다는 완월루에서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동주리를 한눈에 굽어보시며 아름다운 조국산천을 짓밟은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끝없는 증오심을 시에 담으시였다.

…

굶주리는 민중아 슬퍼말아라
짓밟힌 동포야 일어나거라
판가리싸움에 이 몸 바치니
사나이 총검이 분노에 운다
…

짓밟힌 겨레에 대한 사랑과 원쑤에 대한 증오는 김형직선생님의 가슴에서 끝없는 분노와 격정의 파도를 일으켰다.

그것은 그대로 암흑을 불사르는 홰불로, 민족의 정신을 깨우쳐주는 계몽의 종소리로 비운의 조국강산을 흔들어놓았다.

본사기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이슬라마바드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대통령

맘눈 후쎄인각하

나는 귀국인민의 경사스러운 민족적명절인 파키스탄의 날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파키스탄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계속 좋게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4(2015)년 3월 21일 평 양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최후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

온 나라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는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고전적로작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통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할데 대하여》**를 발표하신 15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9(2000)년 3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보시면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 혁명전적지보존과 그 관리운영사업에서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원칙적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은 혁명전통교양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력사적리정표를 마련한 불멸의 대강이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깊이 새겨안으며 장군님의 유훈대로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갈 불타는 결의를 가다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혁명의 억센 뿌리이며 만년초석입니다.》

혁명이 전진하는 과정은 혁명의 대를 꼿꼿이 이어나가는 과정이다. 사람들의 혁명성은 유전되지 않는다. 혁명선렬들이 이룩한 전통과 업적이 위대하다고 하여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저절로 혁명가로 되는것도 아니다. 시대가 전진하고 세대가 바뀔수록 당과 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전통에 대하여 잘 알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갈때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갈수 있으며 후대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준비시킬수 있다.

일찌기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길을 개척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혁명전통교양을 당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로 보시고 이 사업에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여러차례에 걸쳐 현지지도하시면서 규모와 형식, 내용에 있어서 으뜸가는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으로 훌륭히 꾸리도록 하시였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와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잘 알고 그것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도록 방향과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온갖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조국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으며 혁명의 명맥을 꼿꼿이 이어올수 있은것은 혁명전통교양을 줄기차게 벌려나가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온 나라에 혁명전통교양의 불바람이 더욱 세차게 일고있다. 혁명투쟁의 진리를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깊이 심어주기 위하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도 조직해주시고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통한 교양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하시는분이 우리 원수님이시다. 백두의 혁명전통을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로 확고히 틀어쥐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신조이다. 천만군민을 백두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해나가는데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근본담보가 있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수령결사옹위의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수령이 없는 혁명의 승리를 생각한다는것은 태양이 없는 꽃을 바라는것과 마찬가지이다. 수령결사옹위에 혁명의 양양한 전도와 미래가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항일혁명선렬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혁명의 가시덤불길을 헤치며 피와 땀으로 만고의 항쟁사를 창조하였으며 그들이 지녔던 수령결사옹위정신,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은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심장속에 그대로 맥박치고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수령의 사상에 의하여 혁명이 개척되고 전진하며 수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혁명이 승리하게 된다. 이 위대한 진리를 깊이 간직하였기에 우리 혁명의 전세대들은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지니고 수령의 사상과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보위하였으며 수령의 구상과 의도를 한치의 드팀도 없이 결사관철하였다. 절해고도에 홀로 있어도, 최후의 순간에도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믿고 따르며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싸운 혁명선렬들의 위훈은 우리 혁명력사의 갈피마다에 력력히 아로새겨져있다.

백두에서 창조된 수령결사옹위의 성스러운 전통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굳건히 계승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결사옹위하는 길에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며 삶의 순간순간을 영웅적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는것이 바로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전당이 경애하는 원수님과 사상과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는 불패의 통일체로 더욱 강화되고있으며 천만군민이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수령결사옹위로 삶을 빛내인 수많은 영웅들이 배출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의도를 앞장에서 실현해나가는 참다운 혁명가들이 자라나고있는것이 우리 조국의 현실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백두밀림에 차넘쳤던 수령결사옹위의 전통을 이어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것이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오늘의 반미대결전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백승의 담보이다.

오늘의 반미대결전은 사상과 신념, 의지의 대결전이다. 신념과 의지가 강하면 타승하지 못할 적이 없고 그 어떤 원쑤들이 덤벼들어도 무서울것이 없다.

우리 혁명이 걸어온 전로정은 불굴의 신념과 의지로 반제대결전에서 승리만을 떨쳐온 긍지높은 력사로 빛나고있다. 항일혁명선렬들이 아시아의 《맹주》라고 자처하던 일제를 때려부시고 1950년대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놓은것도, 혁명의 년대들마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수 있은것도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념과 의지가 투철하였기때문이다.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선군조선의 자랑스러운 전통은 오늘도 꼿꼿이 이어지고있다.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항일혁명선렬들이 피끓는 심장으로 력력히 아로새긴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구호가 깊이 새겨져있으며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는 멸적의 투지가 만장약되여있다. 지금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군인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답사행군대오가 백두산으로 끊임없이 물결쳐가고 항일혁명선렬들의 혁명신념, 혁명투지, 혁명배짱이 온 나라에 차넘치고있는것은 혁명전통교양, 승리전통교양강화에 커다란 힘을 넣은 우리 당사상교양사업의 생활력의 뚜렷한 과시로 된다. 백두의 기상과 정기로 억세여진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신념이 있는한 반미대결전에서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천만군민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싸워나가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우리 당에서는 이미 1960년대에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전사회적으로 항일혁명선렬들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 생활기풍을 따라배워 사회주의건설에서 천리마의 대고조를 일으키도록 하였다고 가르치시였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이다. 이 위대한 혁명정신의 견인력과 생명력은 혁명과 건설의 년대들마다에서 뚜렷이 실증되였다.

오늘 온 사회에 혁명전통교양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나 항일혁명선렬들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가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그대로 맥박치고있다.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전투적구호가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빛발치고있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과 생활의 전과정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구현하기 위한것으로 되고있다. 항일혁명선렬들이 높이 발휘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질풍같이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선군시대를 빛내이는 기념비적건축물이 수많이 일떠서고있다.

올해는 항일혁명선렬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혈전만리를 헤치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한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오늘의 총공격전이야말로 우리 인민이 지닌 선렬들에 대한 혁명적도덕의리심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남김없이 폭발시켜야 할 영예로운 투쟁이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애국적투쟁을 힘있게 추동하는 원동력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백두의 혁명전통을 선군조선의 영원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최후승리를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을 창조해나가야 할것이다.

윤철희

산림복구전투에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서자!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평양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나무심기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날마다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식수절에 이어 봄철나무심기에 떨쳐나선 시안의 구역, 군들에서는 창성이깔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수십종의 나무를 많이 심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복구전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사업이며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최대의 애국사업입니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시안의 모든 산들에 더 많은 나무를 심고 정성껏 가꾸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시산림복구전투지휘부를 조직하고 나무심기전망목표와 단계별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운데 기초하여 이 사업을 전망성있게 내밀도록 하고있다.

시산림복구전투지휘부의 일군들은 해당 부문 일군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시안의 나무심을 장소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지대별나무심기면적과 종수를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나무모를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웠다.

나무심기성과 계속 확대

평양시에서

시당위원회에서는 면밀한 조직사업에 기초하여 봄철나무심기전투에 시안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산림조성사업과 보호사업은 조국의 미래를 위한 최대의 애국사업이라는것을 깊이 새겨주어 그들이 애국의 열정을 안고 산림복구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집중적인 사상공세를 들이댔다.

시당위원회의 일군들부터 신들메를 조이고 시안의 나무심기전투장들에 달려나가 대중의 심장속에 산림복구는 더는 미룰수 없는 숭고한 애국사업이라는것을 깊이 심어주는것과 함께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나무심기전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시안의 구역, 군들에서도 봄철나무심기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다.

사동구역에서는 산림복구사업에서 기본은 나무모생산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구역일군들이 앞장에 서서 나무모생산에 필요한 수십t의 질좋은 거름을 양묘장에 보내주고 구역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켜 봄철나무심기에서 날마다 새로운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강남군에서는 능력있고 책임성있는 일군들로 군산림복구전투지휘부를 조직하고 이들의 사업을 적극 떠밀어주어 성과를 내고있다.

군당위원회 책임일군은 양묘장에 나가 나무모생산에 애국의 마음을 다 바쳐가고있는 산림경영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정치사업도 진행하고 걸린 문제들도 풀어주어 그들이 나무모생산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순안구역, 삼석구역, 대성구역, 력포구역의 책임일군들도 구역의 산림복구사업은 자신들이 직접 책임졌다는 자각을 안고 봄철나무심기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내밀어 날마다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시안의 중심구역들에서는 거리와 공원들에 더 많은 나무를 심기 위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있다.

현재 가로수들을 수종이 좋은 나무들로 교체하는 사업과 함께 살림집구획들과 공원, 유원지들에 보기 좋은 나무들과 꽃관목들을 심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이와 함께 이미 심은 나무들의 모양다듬기와 관리사업이 질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시인민위원회일군들은 시안의 산림복구전투의 근본열쇠는 나무모생산에 달려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양묘장들을 더 잘 꾸리고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원림부문의 일군들은 시양묘장의 현대화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진행하고 이 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가는것과 함께 나무모생산을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다그치고있다.

애국주의는 조국땅의 나무 한그루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키우는데 자기의 땀과 지성을 바치는 숭고한 정신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봄철나무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나무심기성과는 나날이 확대되여가고있다.

특파기자

—강남군에서— 본사기자 한광명 찍음

평안북도에서

실리있는 림농복합경영방법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산림조성과 산림보호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는 평안북도 일군들의 사업에서 주목되는 점이 있다.

도에서 실정에 맞게 림농복합경영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주민지구의 주변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흔성림조성방법과 림농복합경영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며 나무모를 옮겨심는 방법과 자연갱신에 의한 산림조성방법을 실정에 맞게 배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림농복합경영방법을 적극 받아들일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인민위원회에서는 지난 몇해동안 시, 군들에서 림농복합경영대상지들을 선정하고 나무심기와 알곡생산을 동시에 밀고나가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그 과정에 도안의 시, 군들에서는 불과 2년 남짓한 기간에 9 000여정보의 림농복합경영대상지로 선정된 산들에 나무를 심고 많은 면적에 풀두둑짓기를 진행하여 무더기비와 큰물에 의한 산사태방지대책을 세우고 물저장능력을 높이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림농복합경영대상지들의 8 800여정보에 강냉이, 콩, 고구마, 밭벼 등 농작물들을 심고 가꾸어 많은 알곡을 생산하였다.

림농복합경영방법을 적극 도입하는 사업에서는 구장군과 태천군, 정주시가 앞서나가고있다.

특히 구장군에서는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적으로 수백정보에 나무심기를 하고 그사이에 여러가지 농작물을 심고 가꾸어 1 000여t의 알곡을 생산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신의주시를 비롯한 다른 시, 군들에서도 림농복합경영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도에서는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확증된 림농복합경영방법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일 높은 목표를 세우고 림농복합경영대상지들을 더 많이 찾아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양묘장을 통해 본 오늘과 래일

세포군에서

나무모생산에 힘을 넣어

날씨는 점점 훈훈해지고 땅이 한껏 부풀어오른다. 푸른 숲이 설레이는 세포군안의 산발들에도 소리없이 새봄이 찾아들었다.

《산발마다에 무성한 숲을 이룬 저 나무들의 〈출생지〉는 바로 나무모밭입니다. 그러고보면 오늘의 양묘장에 심은 나무모들에 우리 군의 산림전망이 비껴있다고 해야 할것입니다.》

창성이깔나무, 세잎소나무 등 여러가지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로 꽉 들어찬 나무모밭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해하는 우리에게 군산림경영소일군이 하는 말이다.

그렇다. 푸른 숲은 양묘장에서부터 시작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중앙과 지방들에서 양묘장들을 잘 꾸리고 나무모생산을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하여 장군님께서 좋다고 평가하신 스트로브스소나무와 창성이깔나무를 비롯한 빨리 자라고 경제적리용가치가 큰 나무모들을 계단식으로 많이 생산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 군에는 산림경영소의 모체양묘장은 물론 백산리와 후평리, 오봉리, 현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양묘장들이 꾸려져있다.

그러나 지난 시기 군안의 나무모생산기지들은 지금처럼 훌륭히 꾸려져있지 못하였다. 일부 지역에 나무모생산기지가 있었지만 생산토대가 완벽하지 못하고 나무모비배관리도 과학기술적으로 하지 못하였었다.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을 결정적으로 혁신하여 10년안에 벌거숭이산들을 모두 수림화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심장깊이 새겨안은 군안의 일군들은 지력이 높은 땅을 나무모생산기지로 정하고 대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품을 들인 보람은 컸다.

모체양묘장에 꾸려진 나무모밭은 지력이 높을뿐만 아니라 그 어떤 추위와 가물에도 끄떡없이 여러가지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자래울수 있게 생산토대가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이뿐이 아니다. 군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전문 나무모를 생산하는 온실도 번듯하게 일떠세웠다.

군안의 산림부문 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올해에 군적으로 수백만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이 모체양묘장과 여러 지역의 양묘장들에서 생산되게 된다고 한다.

수백만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모, 결코 적은 량이 아니다.

벌써 약동하는 봄과 더불어 여러가지 수종의 나무모가 《출생지》를 떠나 군안의 거리와 공원, 산발들로 보금자리를 옮기고있다. 보기만 해도 산발마다 푸른 숲 우거질 군의 래일을 보는듯 싶다.

특파기자

쉽게 풀린 양묘장문제

화대군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조성사업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하자면 나무모기르기를 앞세워야 합니다.》

화대군에서 산림복구전투와 관련한 일군들의 협의회가 진행될 때였다. 론점은 양묘문제에 집중되였다.

지난해 군의 산림조성에서 이룩된 성과는 컸다. 하지만 당의 요구에 비해볼때 아직도 거리가 멀었다. 그리하여 군에서는 올해 산림조성계획을 통이 크게 세웠다. 여기에서 기본은 나무모기르기를 앞세우는것이였다. 그러자면 군산림경영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였다. 단위별 양묘장면적이 할당되고 적지선정, 기술적지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였다. 이제는 냄다 밀면 될것이라고 일군들은 생각하였다.

이때 군당책임일군은 한가지 의견을 내놓았다.

《난 우리 집터밭에 양묘장을 만들 결심입니다. 그러면 지력을 높이는 문제같은것은 제기되지 않을것입니다.》

다음날 군당책임일군의 집터밭에 양묘장이 새로 생겨났다.

이 소식은 온 군에 퍼졌다. 장호철, 리광선동무를 비롯한 군당위원회일군들이 앞장에 섰다. 군인민위원회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비롯한 군급기관 일군들이 이에 적극 호응해나섰다. 농촌리일군들의 집터밭에도 양묘장이 생겨나고 질좋은 거름들이 무드기 쌓이였다.

일군들이 집터밭에 꾸린 양묘장은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군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

토원협동농장과 군농기계작업소를 비롯하여 많은 협동농장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지력이 낮은 종전의 양묘장들을 없애고 비옥한 땅들에 양묘장들을 새로 꾸리였다. 그 면적은 무려 10여정보에 달하였다. 모체양묘장을 비롯하여 군적으로 확보된 양묘장면적은 수십정보에 달하였다. 양묘장들에 낸 거름만도 1 000여t이나 되였다.

군에서는 나무모수종을 확정하기 위한 대책안도 토의하였다. 일군들은 아카시아나무, 평양단풍나무, 창성이깔나무, 세잎소나무를 비롯하여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할 계획을 세웠다.

집터밭에 새로 생긴 양묘장, 비록 크지는 않아도 여기에는 애국의 마음이 그대로 비껴있다. 그 마음에 떠받들려 화대군의 산들에 푸른 숲 우거질 그날은 더욱 앞당겨지고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수필

영웅과 모교의 나무

얼마전 운흥군 강호영고급중학교를 찾았던 우리는 교재원을 돌아보았다.

숲을 이룬 바늘잎나무들과 조화를 이루며 가지를 한껏 펼친 한그루 전나무가 류달리 눈에 띄였다.

《이 나무가 무재봉의 영웅전사인 로영순동무가 모교를 졸업하면서 심은 나무입니다.》

교장선생의 그 말에 우리의 가슴은 뭉클해졌다.

타래치는 불길속에서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인 구호나무들을 목숨바쳐 지켜낸 17명 무재봉영웅들중의 한사람인 로영순영웅의 고귀한 넋을 말없이 속삭여주는듯싶은 전나무,

조국의 귀중함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이 땅을 누구보다 열렬히 사랑한 영웅의 숭고한 정신세계가 그 한그루 나무에 비껴있어 우리는 선뜻 걸음을 옮기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주의는 조국땅의 나무 한그루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키우는데 자기의 땀과 지성을 바치는 숭고한 정신이며 애국의 마음은 나무 한그루라도 제손으로 심고 정성껏 가꿀 때 자라나게 됩니다.》

학창시절 로영순동무는 공부도 잘하였고 차분하고 솔직한 성격으로 하여 동무들의 사랑을 받았었다. 학급동무들은 그가 응당 대학에 갈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는 졸업하면서 누구보다 열렬히 인민군대입대를 탄원하였다.

리수복영웅의 시를 읊으며 자기의 고운 꿈을 키워주고 희망의 나래를 한껏 펼쳐준 조국을 지키는 녀병사가 되려는 결의를 불같이 토로한 그날 로영순동무는 선생님과 동무들과 함께 교정에 전나무를 심었다.

그날 그는 선생님과 학급동무들에게 약속했다. 이 나무가 무성한 잎새들을 한껏 펼칠 때 빛나는 군공과 함께 모교의 영예를 떨치겠다고.

그는 그 약속을 지켰고 당의 품속에서 오늘도 영생하는 강호영영웅의 이름으로 빛나는 모교의 영예를 다시금 높이 떨치였다.

우리는 키높이 자란 그 나무를 이윽토록 바라보았다. 억센 가지를 한껏 펼치고 거연히 서있는 전나무는 빛나는 삶과 애국에 대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깨우쳐주고있었다.

그렇다. 조국에 대한 사랑은 그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땅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구체적인 사상감정이다.

돌이켜보면 조국과 인민이 기억하는 수많은 영웅들은 례외없이 이 땅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남달리 사랑한 뜨거운 인간들이였다. 그 마음에서 애국심이 자라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 각오와 신념이 억세여지는것이다.

진정 이 땅에 자기의 땀을 바친 한그루 나무가 없다면 어찌 조국을 사랑한다고 심장에 손을 얹고 말할수 있으랴.

억세인 한그루 나무에 어려있는 영웅의 애국의 넋, 고결한 혁명정신이 우리의 심장을 더욱 뜨겁게 달구어준다.

모교에 심은 한그루 나무와 함께 애국의 뿌리를 이 땅에 든든히 내린 영웅이였기에 혁명의 만년재보인 구호나무를 구원하기 위해 불속에도 서슴없이 뛰여들고 생명도 아낌없이 바칠수 있은것 아니랴.

영웅이 심은 모교의 전나무와 영웅이 지켜낸 구호나무!

준엄한 시각이 오면 불속에도, 원쑤의 화점에도 주저없이 몸을 내댈 육탄영웅의 정신이 어떻게 심어지고 싹트고 자라는지 절절히 깨우쳐주는 영웅의 나무였다.

특파기자 전철주

당이 바라고 시대가 부르는 3대혁명소조원의 전형

기사 《첨단개척의 생눈길에 새겨진 척후병의 자욱》에 대한 각계의 반향

새 세기 산업혁명의 기수가 되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는 새 세기 산업혁명의 척후병, 기수가 되여야 합니다.》

지난 3월 20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기사 《첨단개척의 생눈길에 새겨진 척후병의 자욱》은 우리 식의 창조본때로 새 세기 산업혁명을 앞장에서 이끌어나갈 불같은 열의로 전국의 3대혁명전위들의 가슴을 세차게 격동시키고있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 3대혁명소조원 로광철동무는 당보에 실린 기사 《첨단개척의 생눈길에 새겨진 척후병의 자욱》은 흥남땅의 3대혁명소조원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흥분을 안겨주었다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3대혁명소조원 김원길동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소조원들에게 많은것을 새겨주고있다.

생명의 위험을 동반하는 어려운 연구과제인줄 알면서도 스스로 폭발용접연구를 기술혁신목표로 정하고 첨단개척의 험난한 길을 꿋꿋이 걸어온 그의 정신세계는 얼마나 고결한것인가.

모든 3대혁명소조원들이 소조생활기간에 김원길동무처럼 사생결단의 각오를 안고 생산과 건설에서 절실하게 걸린 기술적문제들을 한가지씩만 풀어도 우리 당의 경제강국건설구상이 실현될 날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우리 련합기업소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김원길동무의 정신세계와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주체비료생산에서 절실하게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겠다.

3페보이라 송풍량자동조절장치의 현장도입, 휴대용수소분석기제작과 같이 생산과 현대화실현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목표로 정하고 끝장을 볼때까지 이악하게 투쟁하여 훌륭한 결실을 안아오겠다.

령대탄광 3대혁명소조원 홍영민동무는 김원길동무에 대한 기사는 오늘 우리 시대 3대혁명전위의 심장이 무엇으로 고동쳐야 하는가를 깨우쳐주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사실 김원길동무는 폭발용접에 의한 안내미끄럼베아링생산방법을 연구완성하고 만세를 부를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폭발용접기술을 3차원곡면부에 도입하는 문제가 제기되자 주저없이 어려운 첨단개척의 길에 나섰다.

무엇때문이였는가. 그것은 그 과제를 어머니조국의 부름으로 받아들였기때문이였다.

어머니조국이 바란다면 설사 그것이 생명까지 바쳐야 하는 위험한 일이라 해도 바로 내가 해야 한다는 3대혁명전위의 깨끗한 량심, 그 길에서 영영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해도 전위의 심장은 영원히 조국과 함께 고동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때문이 아니겠는가.

우리 령대탄광의 3대혁명소조원들도 김원길동무처럼 언제나 어머니조국의 부름을 심장의 박동소리로 소중히 간직하고 살겠다.

석탄증산이자 곧 조국의 부강번영이라는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수천척지하막장들에서 두되전, 기술전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산악같이 일떠선 탄부들의 열의를 최대로 분출시키겠다.

김원길동무처럼 기술혁신결사전에 뛰여들어 한몸이 그대로 도화선이 되고 폭약이 되여서라도 석탄증산의 진격로를 힘차게 열어제끼겠다.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 3대혁명소조원 동청남동무는 김원길동무에 대한 이야기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기사를 보면 볼수록 저도모르게 이런 물음이 나의 가슴을 파고든다.

나는 지금 김원길동무처럼 살고있는가.

사실 그 물음에 떳떳이 대답할수 없다는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이다.

그럴수록 우리 당의 품속에서 그와 꼭같이 군사복무를 마치고 대학을 졸업한 새 세대 청년지식인으로서 소조기간의 순간순간을 값있게 빛내여야 하겠다는 결심이 백배로 굳어진다.

오늘 농업전선은 그 어느때보다도 과학농사의 주인들을 부르고있다. 농업부문에 파견된 우리 3대혁명소조원들이 과학기술성과를 현실에 적극 받아들이고 보다 실리가 큰 새로운 영농방법과 영농기술들을 많이 내놓아야 농업생산을 늘일수 있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영광의 땅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라는것을 언제나 명심하고 과학농사의 전초병, 기수가 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다.

올해의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 맞게 물절약형농법을 받아들이는데서 나서는 문제들과 축산, 양어, 버섯, 온실남새생산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해결에 발벗고 뛰여들어 열백밤을 패서라도 기어이 성과를 내는 열정적인 실천가, 실력가가 되겠다.

본사기자

소조원들을 적극 떠밀어주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3대혁명소조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기업소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을 김원길동무처럼 키우는데서 당책임일군인 자신의 본분을 두고 깊이 생각해보게 되였다.

물론 지금까지 3대혁명소조사업에 당위원회적인 관심을 돌리고 소조원들의 사업조건, 생활조건보장에 품을 들인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당조직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사업이 있다는것을 기사를 통하여 깊이 깨닫게 되였다.

김원길동무가 첨단개척의 어려운 길을 결심하고 성공의 열매를 안아올수 있은것은 그에게 전문가적인 지식이나 남다른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고 조국이 부르는 길이라면 한몸을 기꺼이 내대는 불타는 애국충정이 그를 온 나라가 다 아는 3대혁명전위로 시대의 단상에 높이 세워준것이다.

3대혁명소조원들을 새 세기 산업혁명의 척후병, 기수로 키우자면 그들을 과학기술을 알기 전에 당과 수령을 알고 지식과 재능에 앞서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을 지닌 참된 혁명가, 열렬한 애국자로 준비시키는것이 중요하다는것, 바로 여기에 기사가 당일군들에게 주는 커다란 여운이 있다고 본다.

앞으로 당위원회에서는 3대혁명소조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주되는 힘을 넣어 그들을 당의 부름이라면 물과 불속에도 서슴없이 뛰여드는 충정의 인간,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치는 애국자들로 키워나가겠다. 이와 함께 3대혁명소조원들이 기술혁명의 기수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소조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심화시켜나가겠다.

3대혁명소조원들이 국내원료로 남비정련로의 내화벽돌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 복합탈산제연구를 비롯하여 현재 맡고있는 중요한 과제들을 끝까지 수행하도록 적극 떠밀어주겠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성권

생산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풀어나가는 락랑식료공장 3대혁명소조원들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교육자의 긍지와 자각

우리 학부졸업생들가운데서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3대혁명소조원이 나왔다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교단에서 한생을 묵묵히 바쳐온 긍지와 보람이 가슴에 한껏 넘쳐난다.

김원길동무가 남들이 뛰여들기 저어하는 어려운 탐구의 길을 걸을것을 결심하고 성공의 큰 자욱을 새길수 있은것은 그가 당의 크나큰 신임에 보답하려는 높은 자각과 조국을 위해서라면 한몸을 서슴없이 바치려는 불타는 애국심을 지녔기때문이라고 본다. 이러한 희생적인 각오와 헌신적인 투쟁은 결코 한순간의 충동이나 흥분으로 이루어질수 있는것이 아니다.

거목에 깊은 뿌리가 있듯이 김원길동무의 숭고한 정신세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싹트고 자란것이다. 대학시절에도 그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의 열도가 남달랐고 사회와 집단을 위한 헌신성이 높았다.

대학생들이 김원길동무처럼 사회에 나가 자기 구실을 떳떳이 하도록 하자면 대학시절에 그들의 정신적뿌리를 잘 가꾸어주어야 하는것이다. 바로 그 임무를 우리 교육자들이 맡고있다고 생각하니 어깨가 무거워진다.

기사는 교단을 지켜선 교육자들이 대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스승만이 아니라 애국충정의 뿌리를 가슴속깊이 심어주는 인생의 스승이 되여야 한다는것을 다시금 자각하게 한다.

평양기계종합대학 기계생산공학부 학부장 서일규

무성한 숲의 메아리, 당원이란 어떤 사람인가

삼천군 달천리 40인민반에 사는 산림순시원 조정현동무에 대한 이야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에게서 당적신념과 량심을 내놓으면 남는것이 없습니다.》

당원이란 어떤 사람인가.

전화의 나날 부상병들과 함께 적후천리를 걸어 최고사령부를 찾아가는 화선간호원 안영애가 고결한 당원들의 모습에 자신을 비추어보았던 이 마음속물음이 최후승리를 향한 오늘의 대진군길에 또다시 울리고있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이 창건되여 70돐기의 년륜이 새겨지는 뜻깊은 이해에 수많은 로동당원들이 스스로 자기자신에게 묻는다.

당원이란 어떤 사람인가. 가슴에 당원증을 품었다고 참된 당원이라고 자부할수 있는가. 당생활년한이 오래다고 조선로동당원이란 부름앞에 떳떳이 나설수 있는가.

이 물음에 긍지높이 대답하는 우리의 수많은 당원들중에는 삼천군 달천리의 한 로당원도 있다. 그가 바로 20여년세월 애국의 피와 땀으로 명산의 푸른 숲을 펼치고 굳건히 지켜온 조정현동무이다.

《나는 조선로동당원이다!》

어느 봄날 종달온천으로 유명한 삼천군 달천리에 자리잡은 명산으로 오르는 사람이 있었다. 나무모를 등에 지고 삽을 지팽이삼아 산중턱에 오른 그는 구뎅이를 깊이 파고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나무 한그루를 심는데 오전 한경이나 걸렸다. 가쁜숨을 돌리려고 가까이의 나무등걸에 맥없이 주저앉던 그는 허리부위가 띠끔 쏘는 바람에 헉— 하고 신음했다.

온몸을 전률케 하는 아픔은 그에게 척추골절로 사회보장을 받은 사실을 새삼스레 떠올렸다. 가슴이 미여져왔다.

사회보장자! 그러니 나라에 아무런 리익도 못되는 사람이란 말인가 하는 쓸쓸한 생각에 잠겼던 그는 머리를 세차게 가로저었다.

(아니, 나는 당원이다. 온 척추가 다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해온 긍지와 자부심이 불같이 일며 심한 아픔마저 잊게 했다. 척추교정기구를 띠고 사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나무모와 삽을 들고 험한 산발을 타게 한것은 나라의 귀중한 재부인 산림이 벌거숭이가 되여가는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수 없는 로동당원의 자각이 아니였던가.

(래일도 오르고 모레도 오를테다! 설사 나무 한그루를 심는데 온종일이 걸린다 하더라도 명산의 푸른 숲을 되찾는 이 걸음을 멈추지 않으리라.)

누가 보는 사람이 없는 깊은 산속에서 홀로 비상한 결심을 다지는 로동당원, 그가 바로 조정현동무였다.

여러해전까지만 해도 그는 어느 한 군당위원회 부부장으로 사업하였다. 그러던 그에게 척추골절이라는 의학적선고가 내려진것은 40대 중반기였다. 당에서는 제대군인이며 근 20년간 당일군으로 충실히 일해온 그의 건강회복을 위해 집을 삼천군에 있는 달천료양소가까이로 옮겨주었고 장기치료를 받도록 조치를 취해주었다.

그때 조정현동무는 자기의 직위를 스스로 내놓았다. 당일군이란 궂은일, 마른일 가림없이 인민의 심부름군노릇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당에 짐이 되면서 당기관의 한 위치를 공백으로 남겨두게 할수는 없었던것이다.

그의 안해는 이렇게 된바엔 사회보장수속을 하자고 서둘렀다.

《그러지 마오. 그래도 뭔가 할 일이 있겠지.》

라고 하며 그가 찾아낸 직종이 군약초관리소로동자였다. 군의 한 일군에게서 우리 인민의 체질에 맞는 고려약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어 군약초관리소의 규모가 늘어나게 되는데 로력이 긴장하다는 말을 들었던것이다.

사회보장을 받아야 할 환자로서, 더우기 전직당일군으로서 약초밭을 가꾸는 보통로동자로 일하자니 힘들 때도, 면구스러울 때도 많았다. 하지만 그는 흔연히 이겨내였다. 밤이면 그가 척추부위에 찜질을 하고 수기치료를 받고서야 잠들수 있다는것을 안해를 내놓고는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너무 내색을 하지 않다나니 종업원들은 그를 자기들이나 다름없는 사람으로 여기였고 오히려 어려운 일이 제기될 때면 이전의 당일군이며 로당원인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사실 그것은 몸상태가 정상이 아닌 그에게 있어서 적지 않은 부담이였으나 그는 대중의 믿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였다.

어느날 그는 남들이 오르기 저어하는 산벼랑에서 약초채취를 하다가 굴러떨어져 척추를 더 심하게 다치게 되였다.

그리하여 끝내 사회보장수속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런 그가 명산의 산림지구를 맡아 돌보는 산림순시원일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 가족들은 물론이고 리당일군들과 군산림경영소 일군들도 안된다고 잡아뗐다.

그러나 명산의 나무들이 점점 줄어드는것을 생각하면 먹어도 살로 가지 않고 쉬여도 바늘방석에 앉은것 같다고 하는 그의 절절한 호소에 마침내 일군들도 산림순시원일을 몇해동안만 한다는 다짐밑에 동의하고 말았다.

하지만 그 일이 10년도 아니고 20여년의 기나긴 세월을 이어 계속될줄은 누구도 몰랐다.

때는 고난의 행군시기였다. 그의 가정에도 극심한 식량난이 겹쳐들었다. 느릅쟁이와 풀뿌리로 끼니를 에웠고 그것마저 없으면 벼뿌리를 말려 가루낸것으로 멀건 죽을 쑤었다.

하지만 그는 끼니는 건질지언정 산림을 돌보는 일은 하루도 번지지 않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산에 올랐고 손끝이 모지라지도록 나무를 심고 가꾸었다.

어느날 저녁 산을 내리던 그는 베여낸 나무그루터기에서 여러대의 회초리같은 가지들이 삐죽이 나온것을 보고 그앞에 마주앉았다.

《뭘 그렇게 정신없이 들여다보시우?》

라는 말소리가 울려 뒤돌아보니 마을의 한 주민이였다.

《이걸 보오. 새 가지들이 나왔소. 혹시 나무가 되살아나지 않을가?》

그는 자못 심각해서 물었다. 하지만 상대방은 픽 웃어버리는것이였다.

《원줄기를 밑둥까지 뭉텅 잘라냈는데 그 여린것이 견디여내겠소?》

산을 내렸으나 온밤 그 가지들이 눈앞에서 아롱거렸다. 종시 새벽바람으로 자리를 인 그는 그곳으로 다가갔다. 볼수록 귀여운 가지들을 조심조심 쓸어보던 그는 그중에서 튼튼한 한가지를 남기고 나머지것은 모두 잘라냈다.

그때부터 그 애어린 나무가지는 조정현동무의 특별한 관심사로 되였다. 산을 오르내리며 살펴보고 자기가 마시려던 물마저 부어주었다. 그냥 잘 자라는지 보고싶어 우정 먼길을 에돌아간적도 있었다.

지성이면 돌우에도 꽃을 피운다고 애어린 가지는 무럭무럭 자랐다. 그 과정에 밤나무를 비롯한 일부 나무들은 한번 벤 밑둥에서 또다시 원줄기를 자래울수 있다는것을 알게 된 그는 참으로 기뻤다.

(너희들도 이 땅에 후대를 남기고싶어 하는구나. 그 소원을 이루어주마.)

조정현동무는 명산을 옛 모습 그대로 푸르고 무성하게 하는데 온넋을 쏟았다.

장마철의 세찬 비살에 흙이 씻겨나가 나무뿌리가 다 드러난것을 보면 제 살점이 뜯긴것처럼 가슴아파하며 보드라운 흙에 거름을 잘 섞어 두툼히 덮어주었다. 심은지 얼마 안되는 나무들을 돌보기 위해 무섭게 사품치는 개울물을 목숨걸고 건느기도 하였고 숲속에 산불위험으로 될 담배불이나 불찌가 있지 않나 하여 항상 눈을 밝히고 산림순회를 하였다.

어느 겨울날 그는 한치앞도 가려볼수 없는 세찬 눈보라속에서 발을 헛짚어 산기슭으로 굴러떨어졌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그를 령을 넘던 길손들이 발견하고 업어왔다. 다음날도 눈보라는 여전히 세찼다. 하지만 조정현동무는 몸을 휘청거리며 다시 산으로 올랐다.

당 원 의 생 명

명산의 나무들은 한해두해 줄기가 두터워졌다. 아이들이 뽈을 차며 뛰여놀만큼 번번하던 산등성이들도 세잎소나무와 잣나무림, 밤나무림과 혼성림들로 변해갔고 마침내는 160정보의 울창한 숲을 이루었다. 수많이 뿌리내린 나무들이 명산의 토심을 억세게 그러잡아 장마철이면 의례히 겪군 하던 산사태, 물사태도 사라졌다. 숲이 우거지니 바위와 돌들이 앙상한 뼈처럼 두드러졌던 토양이 한없이 기름지고 부드러워져 산나물과 버섯들이 철따라 무리지어 돋았다.

명산으로 오르는 달천리주민들의 발걸음이 잦아졌다. 깊은 산 그늘에서 자란 만문한 고사리며 원추리, 두릅, 취와 같은 산나물들과 버섯들을 바구니가 넘치게 담아가지고 얼굴들이 환하여 산을 내리는 그들에게 조정현동무는 기쁘게 말하군 하였다.

《산나물도 맘껏 뜯고 버섯도 많이 따가라구. 그런데 나무들은 손대면 안되네.》

촘촘하고 빽빽하게 자라는 나무들사이로, 송진내며 밤꽃향기 그윽한 숲속길로 걸을 때면 그는 이름 못할 희열과 보람으로 가슴이 뿌듯하였다.

그런데 숲의 무성함과 더불어 불미스러운 일들도 생겨났다.

어느날 저녁 산에서 돌아와 잠자리에 들려던 조정현동무는 멀리서 들려오는 텅—텅— 하는 소리에 다시 집을 뛰쳐나갔다. 야밤의 찬비가 부슬부슬 내리고있었으나 그는 진창이 온몸에 튀는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가 오는것을 알아챈 타고장의 도벌자들이 어둠속으로 줄행랑을 놓았다.

숲속에는 여기저기 나딩구는 나무들과 안해와 자식들은 산에서 누가 부르는가고 하며 건강도 집안도 돌볼 생각을 하지 않는 그를 걱정도 하고 원망도 하였다.

극심한 식량난과 육체적아픔, 가족들의 몰리해는 얼마든지 참아낼수 있었다. 제일 속상한 일은 험한 산길에 신발이 너무 빨리 해지는것이였다. 극상해야 한달, 어떤 때는 며칠도 못 가 판이 나니 안해에게 아무것도 해주는것이 없는 그로서는 참으로 미안하기 그지없는 일이였다.

때로 구멍이 숭숭해진 신발바닥에 고무판을 얻어 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신발을 칡줄로 동여매고 다니면서도 그는 변함없이 산에 올랐다.

남편의 병시중을 들래, 뒤바라지를 할래 그리고 자식들도 키울래 누구보다 고생이 많았던 안해, 때로 원망의 눈물을 흘리였지만 끝내는 남편을 리해하고 지지하며 고무해주던 안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는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누구도 그에게 산림순시원일을 하라고 한 사람은 없었다. 그 일을 그만둔다고 탓할 사람도 없었다.

하다면 과연 무엇이 오랜 병환과 겹쳐드는 마음속아픔, 걸음걸음 따라서는 생활난속에서도 변함없이 산림을 가꾸어 160정보에 달하는 푸른 숲이 무성하게 하였는가.

나는 조선로동당원이라는 높은 자각이였다.

당원, 그에게 있어서 그것은 당정책관철의 선봉투사라는 말이였다. 나라일을 두고 걱정만 하는 우국지사가 아니라 자기 한몸을 아낌없이 바치는 열렬한 애국자라는 뜻이였다.

당의 부름앞에 저 하나의 편안만을 생각하면서 몸을 사린다면, 대중이 보는 앞에서는 나라일을 두고 눈물을 흘리며 열변을 토해도 제가 먼저 몸을 내대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당원증을 가슴에 품고있다 해도 죽은 당원이나 다름없다는것이 조정현동무의 굽힘없는 신조였다.

산 당원인가? 죽은 당원인가?

조정현동무는 삶의 순간순간 이 물음앞에 추호도 변치 않을 당적신념으로 떳떳이 대답하며 살아왔다.

달천리주민들은 조정현동무를 두고 말한다.

바로 저런 사람이 전화의 나날 한몸으로 불뿜는 적의 화구를 막을것이라고.

조정현동무 혼자만이 남았다.

(다 자란 나무들을 이렇게 쓰러뜨리다니…)

허영게 잘리운 나무밑둥을 쓸어만지는 그의 얼굴에서 눈물과 비물이 섞여 흘러내렸고 가슴속에서는 피눈물이 솟았다.

그때부터 조정현동무는 자정이 깊은 밤에도 손전지를 켜들고 호각을 불며 산을 한바퀴 돌아보고서야 마음을 놓았다. 어떤 때에는 마을의 젊은이들까지 동원하여 산림초소를 물샐틈없이 지켰다.

그는 작은 생나무아지를 따는것만 보아도 용서치 않았다. 아지 하나쯤이야 뭐라는가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말했다.

《아지를 마구 따면 나무가 제대로 못 자라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찾아와 타협하려들었다.

《아바이, 지금 서까래감 한대에 얼마인지 압니까? 대들보감은 또 얼마라구요? 아바이네 생활도 그리 넉넉친 못한것 같은데 잠시만 눈을 꾹 감고있으라구요. 우리도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정현동무가 나무 몇대 때문에 자기 자식들에게서조차 원망을 산 일이 있다는것을 알수 없었다.

그의 외딸이 출가한지 몇해 지나서였다. 산림순시원인 가시아버지를 믿고 사위가 비좁은 집을 늘굴 계획을 세웠다. 집터를 닦고 기초까지 다진 후 목재를 좀 달라고 청하였는데 대번에 거절당하였다. 사위는 리해가 안되였다.

《이 산의 나무야 모두 아버님이 심고 가꾼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그는 되물었다.

《그건 옳네. 그렇다구 이 산의 나무가 다 내것이라고 생각하나?》

《몇대쯤이야 뭐…》라고 말을 얼버무리는 사위에게 그는 이렇게 오금을 박았다.

《몇대가 아니라 한대도 못 다치네. 이건 다 나라것이야. 산림순시원에겐 나무를 심고 관리할 의무만 있지 처분할 권리는 없어.》

사위는 그 일이 속에서 내려가지 않았다. 사연을 안 조정현동무의 맏아들이 어릴적 일을 들려주었다.

고난의 시기였다. 아직 풀들도 돋기 전인 이른봄이여서 그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동무들과 함께 송기를 벗겨가지고 왔다. 그런데 그것을 본 아버지의 얼굴이 컴컴해졌다. 송기를 벗기면 소나무가 죽는다고 그만큼 말했는데 왜 벗겨왔는가고 꾸중하는 아버지에게 아들은 대답했다.

《아버지네 구역이 아니구 산릉선너머에 가서 벗겨왔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더욱 성을 냈다. 돌덩이 같은 주먹이 쾅 하고 방바닥을 내리쳤다.

《이녀석아, 거기 산은 우리 나라 산이 아니라더냐.》

원칙 하나밖에 모르는 그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인정사정없는 꼬장막대기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 사람들을 조정현동무는 준절히 타일렀다.

《국가재산을 솔금솔금 빼내여 제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라가 허리를 펴지 못하네. 나라가 부흥해야 매 가정의 살림도 풍성해진다는걸 명심하라구.》

그는 도리여 나라재산인 나무에 헛눈을 팔지 말고 집짐승을 키우거나 터밭을 잘 가꾸어 가정살림을 꾸려나가라고 충고하였다.

몇해전 어느날 조정현동무는 숲을 돌아보다가 명산지구에서 함께 일하는 다른 산림순시원을 만났는데 그가 몹시 당황해하는것이였다. 그의 등에 팔뚝굵기만 한 나무들이 여러대 지워져있는것을 본 조정현동무는 깜짝 놀랐다.

《집에 울바자감이 모자라서…》

그 순시원은 변명하듯 중얼거렸다.

《정신있소? 산림을 돌보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손을 대다니.》

조정현동무는 노여워서 펄펄 뛰였다.

그 일이 있은 뒤 그 순시원은 조정현동무를 달갑지 않게 대했다. 떡치는 사람 떡먹고 엿장사 엿빨기마련이라는데 같은 순시원끼리 뭘 그다지나 원칙을 따지며 딱딱하게 구는가 하는것이였다.

조정현동무는 그를 다시 만났다.

《산림관리규정은 하나요. 원칙도 하나구. 누구에게는 해당되고 또 누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법이고 원칙이겠소. 자기는 어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지키라고 요구한다면 백년, 천년이 가도 산이 푸르러질수 없소.》

조정현동무는 당적원칙을 당원의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이다.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칼날우에라도 올라서는 비타협적이고 고지식한 그를 두고 사람들은 《범아바이》라고 불렀다.

그는 언제나 산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에게 우리 당의 산림애호정책을 꾸준히 해설해주었으며 달천리 34인민반의 장두하로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명산의 수호자로 만들었다.

달천리주민들이 로당원인 조정현동무를 존경하고 따르는데는 이런 사연도 있다.

드넓은 산림을 돌보느라 몹시 바쁜 조정현동무이지만 집울안에 있는 자그마한 꽃밭 역시 정성껏 가꾼다. 추운 겨울날 집안의 화분에 심었던 효성화가 남먼저 꽃밭에 옮겨지는 이른봄부터 늦은가을까지 진주꽃이며 백리향, 도라지꽃, 개나리, 다리아를 비롯하여 가지가지의 아름다운 꽃들이 피여난다. 산에서 떠온 이름모를 꽃도 있다.

태양절과 광명성절, 당창건기념일을 비롯하여 꽃다발을 엮는 때가 오면 청소년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으로 줄지어 찾아든다. 엄한 숲할아버지로부터 한없이 부드럽고 인자한 꽃할아버지로 된 그가 마을사람들의 손에 향기로운 꽃송이를 들려줄 때면 사람들은 이 인사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고 묻는다. 그러면 그는 말한다.

《우리 수령님께와 장군님께 내 마음까지 합쳐 꽃송이를 드려주게.》

그는 참으로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옆으로 보나 한모습이였다.

아바이는 어쩌면 그렇듯 한본새인가고 사람들이 감동깊어할 때마다 조정현동무는 자기의 한생을 돌이켜본다.

그는 3살때 어머니를 잃고 전쟁시기에는 아버지마저 잃었다. 작렬하는 포화속에서 형과 누나의 행방마저 잃어버린 그는 외토리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였다. 그런 그를 식솔로 받아준것은 고향마을의 리인민위원장이였다. 녀성인민위원장은 그만이 아닌 10여명의 전재고아들을 자기 자식들과 함께 키웠다. 그 나날 당과 조국의 고마움이 그의 가슴속에 꽉 들어찼다.

그 고마움을 안고 조정현동무는 20살에 조선로동당에 입당하였다. 어릴적에 부모를 다 잃어 생일조차 몰랐던 그는 뜻깊은 입당년월일을 생일로 정했다.

일상생활에서는 한없이 검박한 그이지만 그날에만은 소박하게 차린 생일상도 받고 축배잔도 기꺼이 받는다. 그때마다 그의 심장속에 뜨겁게 고패치는 시구절이 있다.

태여난 그날보다
더 귀중한 날이
나의 생일과 같이 기록되고있어라
입당년월일이여

자서전에
어느 문건에
영생의 삶이 뿌리내린 이날을
더없이 소중한 날로 적으며
마냥 가슴뿌듯해오는 생각
당원의 값높은 생이여
…
행복하구나
수백만 당원의 한 성원으로
당의 성벽을 떠받든 고임돌이 되여
투쟁하고 혁명하는
성스러운 대오의 기수로 산다는것이

수십년전 어느 한 출판물에서 보고 베낀 시 《당원의 나이》를 조정현동무는 여러 수첩들에 옮겨가면서 지금껏 애송해오고있다.

자신의 생활에서 당적원칙이 잠시나마 흔들리려 할 때, 당적량심이 조금이나마 흐려지려 할 때 그는 이 시를 심장에 다시 쪼아박는다.

당원의 생명은 육체적로쇠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적원칙과 량심을 저버리는 바로 그 순간에 끝나기때문이다.

* *

지금 이 시각 나라의 그 어디엔가에서 누군가가 숭엄한 마음으로 조선로동당 입당청원서를 한자두자 정성껏 쓰고있을수도 있다. 또 누구누구는 세차게 나붓기는 당기발아래서 굳게 틀어쥔 주먹을 높이 들고 입당선서를 엄숙히 다지고있을지 모른다.

그들의 가슴가슴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개척하고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위업실현에 앞장서는 우리 당의 충직한 선봉투사가 되리라는 신념의 맹세로 불타리라.

높뛰는 심장가까이에 당원증을 고이 간직한 수천수만의 조선로동당원들이여, 그대들 역시 바로 그렇게 맹세다지지 않았던가. 가장 어렵고 필요한 시각에 열리는 당회의마다에서 그것을 다시 굳게 결의하지 않았던가.

그 맹세를 언제나 잊지 않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나가는 조정현동무와 같은 참된 당원들이 많을 때 자연과의 전쟁에서도, 경제활성화와 문명강국건설에서도 자랑찬 승리를 앞당기게 된다는것을 영예로운 조선로동당원들이여, 심장깊이 새기자.

본사기자 김 일 룡
본사기자 허 명 숙

조정현동무 (왼쪽에서 세번째) 본사기자 림학락 찍음

당의 인민사랑의 높은 뜻 받들어

희천시의 일군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사업의 절대적기준으로 삼고 오직 인민들이 바라고 좋아하는 일을 하여야 하며 무슨 일을 하든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희천시의 일군들이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고있다.

희천—강계, 희천—개천, 희천—정주로선뻐스를 리용하는 인민들속에서 정시출발, 정시도착이라는 좋은 반영이 제기되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희천발전소가 일떠서 생긴 대인공호수에 여러척의 려객선이 오고가며 동신군의 원흥료양소를 찾는 사람들과 나들이다니는 인민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더해주고있다.

몇해전 무궤도전차들의 정상운행을 보장하기 위한 문제를 놓고 진행된 협의회에서 시당책임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꽃피우는 책임적인 사업이라는것을 명심하고 타산을 앞세우지 맙시다.》

그의 말은 일군들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무궤도전차대수를 늘이고 차사업소의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려주며 전차선로의 전기문제를 풀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의 일군들은 무궤도전차대수를 늘이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였다. 그리고 시송배전소에서 무궤도전차들의 정상운행에 요구되는 전기를 우선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함께 군중적으로 유휴자재수집사업과 내부예비탐구동원사업을 벌려 전차선, 전동기수리에 필요한 자재들을 마련하여 차사업소에 보내주었다.

지배인 김성일동무를 비롯한 차사업소의 일군들은 청년들로 돌격대를 뭇고 수개월동안에 전차선로의 기술상태를 개선하고 수백개나 되는 전차선전주보수공사를 끝낸데 이어 수리기지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려놓았다.

이들은 희천기관차대의 기술자, 기능공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 전동기수리기지를 꾸리고 유리와 철판, 도색감들을 해결하여 여러대의 무궤도전차를 새것처럼 살려냈다.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시의 일군들은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여 1년 수개월동안에 무궤도전차와 뻐스대수를 10여대나 더 늘일수 있게 하였다.

시의 무궤도전차정류소들에 유개식시설과 《철령아래 사과바다》를 비롯한 선군시대의 천지개벽을 보여주는 전광사진판들이 설치되여 거리의 모습은 더욱 이채로와지게 되였다.

희천발전소가 일떠서 희천시와 동신군사이에 인공호수가 생겼을 때였다. 시의 일군들은 인민들의 교통상편의를 위해 차사업소에 해운작업반을 새로 내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배무이에 요구되는 목재, 철판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주었다.

그다음 해당 부문 일군들과 호수주변을 밟으며 맞춤한 곳에 부두위치를 확정하였다.

이런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차사업소에는 6척의 려객선이 마련되여 80여리 물길을 오고가며 인민들의 교통상편의를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시의 일군들은 그에 만족하지 않고 차사업소에서 여러 로선뻐스들의 정상운행을 보장하도록 대책을 세워주었다.

정시출발, 정시도착이라는 이 말속에는 무궤도전차, 로선뻐스, 려객선들을 리용하는 인민들의 편의를 위해 헌신하고있는 시의 일군들과 차사업소종업원들에 대한 감사의 정이 그대로 비껴있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지금 시에서는 샘물공급소건설을 다그쳐 끝내여 시민들에게 샘물을 공급해주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특파기자 동 세 웅

아름다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한 전쟁로병을 만나보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나라에 서로 돕고 이끄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미풍이 차넘치게 하여 우리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일심단결의 대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얼마전 평성시에 대한 취재길에서였다.

어느날 평성시 중덕동에서 살고있는 한 로인이 우리를 찾아왔다.

고향을 남녘에 둔 전쟁로병인 최준규로인이였는데 우리를 만나자 무척 반가와하는것으로 보아 그에게 더놓지 않고서는 못 견딜 그 어떤 남다른 사연이 있는것만 같았다.

우리는 로인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전해듣게 되였다.

평성시 중덕동에는 수십명의 전쟁로병들이 살고있는데 그들 모두에게는 오랜 세월 한가정, 한식솔처럼 정을 맺고 사는 고마운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중덕동 25인민반에서 사는 리성길, 김리향부부이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 새해 첫날 최준규로인의 집으로 낯모를 젊은 부부가 들어섰다.

갖가지 식료품과 기념품, 귀한 약재를 안고온 그들은 의용군출신의 전쟁로병할아버지가 같은 마을에서 산다기에 이렇게 무랍없이 찾아왔다고,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좋은 이야기랑 많이 들려달라고 친절하게 이야기하는것이였다. 그들이 바로 리성길, 김리향부부였다.

그렇게 맺어진 인연은 그후 10년세월이 흐르도록 변함없이 이어져왔다.

최준규로인은 그 나날 리성길, 김리향동무들이 자기만이 아닌 동안의 모든 전쟁로병들의 생활을 친자식된 심정으로 따뜻이 돌봐주고 이미전부터 한 특류영예군인가정과 한식솔처럼 지내고 있는 사실도 알게 되였다.

《지내보니 그들뿐아니라 그 집 사람들모두가 진국입데다.

김리향동무의 어머니 류금숙녀성부터가 원군사업을 비롯해서 전쟁로병, 영예군인들을 위한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나서는 훌륭한 사람이지요. 그는 자식이라고는 두 딸이 전부이지만 모두 군사복무를 하도록 했구 사위들도 끌끌한 제대군인들로 얻었습니다. 조국을 지켜 피흘려 싸운 전쟁로병, 영예군인들이 있어 오늘이 있다면서 우릴 위해 어찌나 극성인지 어떤 때는 너무 미안해서 그를 피해다닐 정도입니다.》

최준규로인은 그러면서 동안의 전쟁로병들이 몇번이나 모여앉아 류금숙가정의 소행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수 있게 하겠는가를 토의했다고, 그러나 끝내 그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을 이었다.

《내막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들이 펄쩍 뛰지 않겠소. 도인민보안국에서 복무하는 리성길동무는 인민보안원이야 인민의 복무자, 심부름군인데 소개라니 될 말인가고 했고 김리향동무도 어찌나 사양하던지. 그래도 우리가 막무가내로 우기자 하루는 류금숙녀성이 우리에게 찾아와 사회와 집단을 위해 적으나마 기여한 자기와 딸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분에 넘치게도 감사를 보내주신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면서 응당 할 일을 했을뿐이라나요.》

로인의 절절한 눈빛앞에서 우리의 생각은 깊어졌다.

우리 당이 아끼고 내세우는 혁명의 전세대들을 위해 자기를 아낌없이 바치는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가.

로인과 헤여진 후 자기 본분을 자각하며 아름다운 사람들을 찾아서 끝없이 이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본사기자 리 남 호

드 높 은 체 육 열 의

단천시 장내협동농장이 체육열기로 끓어번지고있다.

리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농장에서는 대중체육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이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농장에서는 국가적명절과 휴식일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체육경기를 다양하게 조직하고 있다.

일군들부터가 이 사업에 앞장서고있다.

얼마전 체육의 날을 맞으며 진행된 체육경기가 이채로왔다.

대중률동체조, 건강태권도로부터 시작된 체육경기는 작업반별, 분조별체육경기로 이어져 고조를 이루었다.

이날 작업반초급일군들의 배구, 탁구경기는 농장원들의 체육열의를 더욱 높여주고 집단의 단합을 시위하는 좋은 계기로 되였다.

농장원들의 체육열기는 그대로 올해농사에서 기어이 장훈을 부를 결심을 안고 떨쳐나선 드높은 로력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로농통신원 원 기 연

조국의 영예를 떨쳐갈 유능한 축구선수후비들로 준비해가고있다. —만경대구역청소년체육학교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사대와 동족대결을 일삼는 역적무리를 력사의 심판대에 끌어내자

굴종동맹, 전쟁동맹의 치욕사를 끝장내야 한다

최근 남조선 각계에서 미국과의 굴욕적인 《동맹》관계에 대한 규탄배격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동기는 미국대사징벌사건이다. 한갖 대사에 불과한 리퍼트앞에서 집권자를 비롯한 괴뢰우두머리들이 아첨경쟁이라도 하듯 저저마다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며 놀아댄 비굴한 추태, 남조선미국 《동맹》에 대한 《공격》이니 뭐니 하며 무슨 큰 변이라도 난듯이 복닥소동을 일으킨 역겨운 망동은 만사람의 조소와 비난을 자아냈다.

괴뢰보수패당의 너절한 대미굴종행위는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적자존심을 크게 자극하였으며 이것은 곧 미국과의 《동맹》에 대한 회의와 불만, 강한 배척으로 이어지고있다. 지어 괴뢰보수언론들과 전문가들속에서조차 미국과의 《동맹》에 대한 《지나친 애정공세가 독이 되고있다.》, 《크게 우려된다.》는 소리까지 울려나오고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불평등하고 예속적인 남조선미국 《동맹》이 남조선 각계층의 비난과 조소, 배격의 대상으로 되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집권세력은 리퍼트징벌사건과 관련하여 미국과의 《동맹》에는 《영향이 없다.》느니, 비가 온 다음 땅이 굳어지듯이 《동맹》관계는 《더욱 굳건해질것》이라느니 하는 쓸개빠진 망발을 늘어놓고있다. 이야말로 꼬물만 한 자존심도 없이 미국을 할애비처럼 섬기는 천하의 매국역적들, 민심이 어디로 쏠리고 세계가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도 알지 못하는 정치적저능아들의 망신스러운 짓거리가 아닐수 없다.

외세에게 자주권을 통채로 저당잡힌 남조선괴뢰당국이 그 무슨 《동맹》을 운운하는것자체가 당치않은 궤변이다.

원래 동맹관계라는것은 리해관계와 목적의 공통성으로 하여 맺어지는 련합이나 긴밀한 련계를 의미하는것으로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주와 평등, 호혜의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 이렇게 놓고볼 때 남조선미국 《동맹》이라는것은 애당초 동맹이라고 말할수조차 없다. 그것은 상전과 주구의 결탁관계로서 단지 동맹의 허울을 썼을뿐이다.

남조선미국 《동맹》은 미국의 남조선강점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

1945년 9월 8일 일제의 무장해제를 구실로 남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한 미국은 인민위원회들을 강제해산하고 군정을 실시한데 이어 괴뢰정권을 조작하였다. 미국은 저들의 손때묻은 주구들을 꼭두각시로 내세워 불평등하고 예속적인 《조약》과 《협정》들을 체결하고 그것을 통해 지배와 종속의 《동맹》관계를 고착시켰다.

《통수권이양에 관한 협정》, 《호상방위조약》, 《행정협정》 등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미국은 지난 세기 50년대에 조선전쟁을 도발하고 괴뢰들과 《통수권이양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괴뢰군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전후에는 《호상방위조약》을 꾸며내여 남조선에 저들의 침략무력을 마음대로 배치할 권리를 가졌으며 미제침략군의 영구강점을 합법화하였다. 뿐만아니라 《행정협정》의 조작으로 남조선강점 미군의 치외법권적지위를 획득하였다. 남조선을 《동맹》의 고삐로 든든히 틀어쥔것으로 하여 미국은 지난 수십년간 남조선에서 주인행세를 하면서 온갖 전횡을 부렸으며 인민들은 침략자의 군화발밑에서 참을수 없는 치욕과 불행, 이루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당해왔다.

이런 상태에서 남조선과 미국의 동등한 자격과 권리는 상상조차 할수 없다. 남조선과 미국의 외교관계사를 서술한 한 도서는 쌍방사이의 관계는 《상호평등, 호혜적인 수평관계라기보다는 일방통행식의 수직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썼다. 현실은 남조선미국 《동맹》이야말로 상전과 식민지주구사이의 철저한 주종동맹으로서 미국에 대한 남조선의 예속을 심화시키는 굴종동맹이며 미국의 북침야망실현을 위한 전쟁동맹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에서 현 괴뢰보수정권이 출현한 이후 남조선미국 《동맹》의 수치스러운 면모는 더욱 드러나고있다.

괴뢰당국자는 자기가 들고나온 그 무슨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라는것이 미국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하고있다는데 대하여 숨기지 않았다. 그는 남조선미국 《동맹》이 《안정과 평화의 핵심축》이라느니, 《포괄적전략동맹으로의 심화발전》이니 뭐니 하며 갖은 아양을 다 떨었다. 이것은 미국의 옷자락에 더욱 바싹 매달려 저들의 매국반역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술책이였다.

괴뢰패당은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최우선적인 정책과제로 내걸고 그 실현에 박차를 가하였다.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남조선을 행각하는데 대해 너무도 감지덕지하여 대참사인 《세월》호침몰사건은 아예 팽개치고 상전앞에 아양을 떨며 꼬리를 저은 청와대안방주인의 낯뜨거운 추태는 현 괴뢰집권세력이 《가장 성공한 동맹》이라고 광고하는 남조선미국 《동맹》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동족대결에 환장한 현 괴뢰집권세력은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영구강점을 애걸하며 상전의 강요대로 침략군유지비를 더 많이 섬겨바치는가 하면 내외의 한결같은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고도요격미싸일 《싸드》를 남조선에 끌어들일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있다.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는 미국의 북침전쟁사환군인 괴뢰패당의 추악한 정체를 뚜렷이 립증해주었다. 현 괴뢰집권자는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의 《차질없는 추진》을 공약하고서도 친미주구로서의 본성을 드러내며 그것을 끝끝내 무기한 연기시키였다.

괴뢰들이 이처럼 미국에 아부추종하여 《동맹》강화를 위해 모든것을 다 섬겨바쳤지만 그 대가는 수치와 모멸, 랭대밖에 없다. 얼마전 미국이 괴뢰대통령의 통화내용까지 도청하며 전횡을 부린 사실이 폭로되였지만 괴뢰들은 항변 한마디 못하고 인민들의 반미기운을 눅잦히기에 여념이 없었다. 최근에는 미국이 과거사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을 공공연히 편들며 괴뢰들을 욕질하였지만 역시 이번에도 벙어리랭가슴앓듯 머저리노릇만 하였다. 이런 오만한 미국과의 굴욕적인 《동맹》을 놓고 자랑하기가 창피하지도 않은가.

하긴 미국에 매여사는것을 정상적인것으로 지어 긍지로 생각하는 얼간망둥이들이니 달리 처신할수는 없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미국대사가 칼침을 좀 맞은것을 놓고 불에 덴 소처럼 화들짝 놀라 못난 추태를 부린것이다.

미국대사징벌사건은 남조선과 미국의 예속적인 《동맹》관계를 객관적으로 보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것을 말해주었다. 괴뢰패당은 《민중의 리익보다 미국의 리익을 우선시하는 친미동맹은 있을수 없다.》는 격분에 찬 민심의 웨침을 귀에 새겨야 한다.

불평등한 현 남조선미국 《동맹》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이 외세의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날수 없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가실수 없다. 지금 남조선 각계가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대해 개탄하면서 《친미가 아니라 반미를 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괴뢰보수패당이 제아무리 친미사대매국행위에 열을 올리여도 그것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반미기운만 고조시키게 될뿐이다.

남조선에서 민족적불행과 고통을 낳고 조선반도에 핵재난을 몰아오는 미국과의 굴종동맹, 전쟁동맹의 치욕스러운 력사는 하루빨리 끝장나야 한다. 그길만이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념원을 실현하는 길이다.

최 철 순

도이췰란드단체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 도발소동을 강력히 규탄

도이췰란드반제연단이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 《인권》소동과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여 5일 도이췰란드주재 남조선괴뢰대사관에 항의편지를 보내였다.

편지는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공모결탁하고 유엔을 도용하여 벌리는 반공화국 《인권》모략책동을 단호히 규탄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것은 명백히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의 리익에 대한 란폭한 침해행위이다.

70년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 미국의 강점하에 있고 군통수권마저 미국에 빼앗긴 남조선은 진정한 자주독립국가가 아니다.

남조선녀성들을 미군의 성노리개로 만든것은 일제식민지통치시기의 성노예범죄를 방불케 하는 반인륜적범죄이며 인권침해행위이다.

남조선에서는 미국의 문화적침투로 하여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가 무참히 파괴되였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우수한 민족적전통의 계승발전을 적극 장려하고있다.

조선의 강력한 핵억제력은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에 대한 명백한 대답이다.

자기 조국과 인민을 지키는것은 모든 국가들의 권리이며 의무이다.

남조선의 《보안법》은 세계에 유일무이한 매국배족적인 파쑈악법이다.

우리는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 김정은동지께서 민족적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하여 제시하신 수많은 공명정대한 방안들 특히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 대하여 상기시킨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얼마전 미국이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을 림시중지하는 경우 핵시험을 림시중지하는 화답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데 대하여 밝혔다.

조선반도정세격화의 장본인은 바로 미국과 그와 야합한 남조선당국이다.

우리는 정치적대립으로 인한 온갖 형태의 강권과 《민주주의》, 《자유》, 《인권》의 간판밑에 감행되는 반공화국도발소동을 단호히 규탄한다.

【조선중앙통신】

부산의 대학생들

《유신》후예의 행각을 반대하여 투쟁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16일 남조선의 부산대학교에서 괴뢰집권자의 행각을 반대하는 항의운동이 전개되였다.

이날 박근혜가 대학교에 온다고 하자 대학생들은 대학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그들은 박근혜가 《종북》소동과 공안탄압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박정희 《유신》독재를 련상케 한다고 비난하였다.

독재 《정권》퇴진, 《유신헌법》철폐를 주장하여 떨쳐나섰던 부산, 마산민주항쟁의 력사가 깃들어있는 대학에 《유신》독재자의 딸이 발을 들여놓는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집권자가 반 《유신》의 상징인 부산대학교를 행각할것이 아니라 《종북》몰이를 중지하고 최악의 취업난과 경제위기에 직면한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 황석제도 롱성시위를 벌렸다.

그는 현 《정권》의 반민중적인 교육정책을 규탄하면서 국립대학들에 대한 구조조정안 페기, 등록금폭등과 관련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파쑈경찰들이 항의행동을 가로막았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나갔다.

악에 받친 경찰들이 총학생회장에게 달려들어 폭압의 도수를 높이자 대학생들속에서 격노한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들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까지 가로막는 공안당국의 망동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규탄하였다.

광란적인 《종북》소동에 깔린 기도

최근 남조선에서 미국대사징벌사건을 계기로 《종북세력척결》광풍이 스산하게 몰아치고있다. 사건발생후 《배후세력을 밝혀내라.》는 집권자의 폭압지령에 따라 괴뢰당정청고위급협의회에서 《종북세력의 테로》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미 검찰과 경찰을 비롯한 폭압당국이 《종북세력》수사에 총발동되였다. 《새누리당》패거리들은 미국대사에게 칼세례를 안긴 김기종을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같은 진보적단체들과 억지로 련결시키면서 그의 행동이 《개인의 돌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종북세력의 계획적인 테로》라는 날조된 여론을 내돌리고있다. 그런가 하면 김기종과 야당인사들과의 관계를 거들며 새정치민주련합을 비롯한 야당세력에게 《종북》의 딱지를 붙이고 《극단적종북주의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기염을 토하고있다. 괴뢰보수패당의 《종북세력척결》소동은 그야말로 히스테리적인것으로서 내외의 경악과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하다면 미국대사가 며칠이면 회복될수 있는 정도의 칼세례를 받은 사건이 왜 그토록 광란적인 《종북세력척결》란동으로 이어지고있는가 하는것이다. 남조선에서 일고있는 살벌한 《종북》소동에는 명백히 미국대사징벌사건을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악용하는 괴뢰보수패당의 술책이 깔려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남조선에서는 그 어느때보다 반미, 반《정부》기운이 고조되고있었다. 미국무성 차관이 과거사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의 편역을 들며 괴뢰들을 비난하는 발언을 한것으로 하여 남조선 각계는 미국에 저주를 퍼붓고 분노를 터치였다. 고고도요격미싸일 《싸드》를 남조선에 배비하려는 미국과 괴뢰당국의 심상치 않은 기도도 남조선 각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더우기 정윤회국정개입사건이 터져나오고 각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측근들을 끼고도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집권자의 인사정책이 계속되였는가 하면 전 정보원장 원세훈의 구속수감으로 보수패당이 지난 《대통령》선거를 부정협잡판으로 만든 사실이 확인되면서 괴뢰당국은 최악의 통치위기에 처하였다.

이런 속에 《국회》의원보충선거까지 눈앞에 다가오면서 괴뢰보수패당은 극도의 불안감에 사로잡히였다. 집권자의 지지률이 사상 류례없는 수준으로 떨어진 형편에서 불리한 정국을 수습하지 못한다면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패하게 될것은 불보듯 뻔한노릇이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미국대사징벌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이 터지자 보수패당은 모주냄새맡은 돼지마냥 헤덤벼치면서 무작정 이 사건에 대해 미국과의 《동맹에 대한 공격》, 《종북반미세력의 소행》이라고 악청을 돋구며 진보민주세력을 겨냥한 총공세에 나섰다.

그에 대해 남조선의 한 언론은 이렇게 분석하였다.

《현시기 공안사건이 자주 〈종북〉공세의 면모를 띠게 되는것은 사건을 북과 련계하였을 때 그로부터 적지 않은 정치적리익이 발생하기때문이다. 그 정치적리익은 다양한것으로 분석된다.》

틀리지 않는 주장이다.

실제로 괴뢰집권세력은 미국대사징벌사건을 《종북세력》의 소행으로 몰아 남조선에서 높아가는 반미기운을 약화시키고 《싸드》배비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짓눌러버리며 《종북》광풍으로 정치적반대파들을 눌러버림으로써 극도의 통치위기를 모면하는데 악용하고있다. 괴뢰패당이 남조선미국 《동맹》이 《굳건하다.》느니 뭐니 하는 쓸개빠진 나발을 줴치면서 《싸드》를 하루빨리 남조선에 배비하여야 한다고 공공연히 피대를 돋구고있는 사실, 야당들의 반대로 《국회》에서 좀처럼 통과되지 못하고있던 각종 악법들을 이번 기회에 통과시키려고 발악하고있는 사실 그리고 《국회》의원보충선거구도를 저들과 《종북세력》사이의 대결구도로 만들려고 꾀하고있는 사실도 그것을 말해준다.

괴뢰패당의 《종북세력척결》소동을 그냥 내버려둔다면 반역 《정권》의 친미사대행위와 동족대결책동, 반인민적악정은 더욱 강화될것이며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각계층 인민들의 념원도 실현할수 없게 될것이다.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

자주, 민주, 통일을 요구하며 줄기찬 투쟁을 벌려온 남조선의 각계 진보민주세력이 각성해야 할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본사기자

언론의 사명과 책임을 다할것이라고 주장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자주일보》가 자주, 민주, 평화, 민생, 진실을 위한 언론활동을 벌려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자주일보》 대표 리정섭은 신문이 분렬된 조국의 통일을 위해, 전쟁연습과 동족대결을 반대하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남과 북, 해외의 온겨레는 물론 세계의 량심이 지지하는 7.4공동성명과 조국통일3대원칙,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하여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 바쳐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정치적목적을 노린 《종북》소동을 비난

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기독교교회협의회가 11일 론평을 통해 미국대사징벌사건을 계기로 《종북》소동에 열을 올리는 괴뢰패당을 규탄하였다.

단체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가 《종북세력배후찾기》 등으로 번져지고있다고 비난하였다.

통일운동과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는 사람들, 교회협의회관련 인사들에게로 수사를 확대하려 하는데 대해 우려를 금할수 없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단평 가련한 오물청소부

얼마전 괴뢰당국이 폐유와 중금속 등 유독성물질에 말그대로 쩔대로 찐 부산과 동두천의 미군기지들을 오염정화가 조금도 되지 않은 상태로 넘겨받기로 하였다. 그중 부산기지는 남조선강점미제침략군의 페기물처리장이라고 한다. 이것은 괴뢰들이 상전과 벌린 미군기지반환협상이 굴욕협상으로 일관된 결과이다.

남조선미국 《행정협정》에는 기지를 제공하거나 반환할 때 오염시킨 당사자가 오염을 제거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보다싶이 그것은 허울에 불과하다.

지금껏 미국은 미군기지들의 오염상태가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은 아니라고 우기며 오염정화에 대한 책임을 한사코 회피하여왔다. 이번 협상에서도 사정은 다를바 없었다. 괴뢰들이 상전에게 오염정화대책을 조심스럽게 비쳐보았댔지만 미국측의 태도는 오만하기짝이 없었다. 주인이 토해낸 구린것들을 말끔히 청소하는것이 개의 몫이 아닌가 하는 자세였다. 결국 괴뢰들은 이번에도 또 막대한 혈세를 들여 상전이 해야 할 기지오염제거를 맡아해야 할 판이다.

온 남조선땅을 저들의 뒤간만큼도 여기지 않는 미국의 거만성과 그앞에서 찍짹소리 한마디도 못하는 괴뢰들의 비굴한 자세를 보여주는 대표적실례라 해야 할것이다. 오죽했으면 남조선언론들이 《이런 일이 벌써 몇번째인가.》고 개탄하면서 미국에 질질 끌려다니는 괴뢰당국의 저자세를 신랄히 비난하고있겠는가.

친미사대와 동족대결행위로 하여 그러지 않아도 온갖 오명을 다 쓰고있는 괴뢰패당에게 이번에는 미국의 가련한 오물청소부라는 딱지를 붙여야 할것이다.

허 영 민

대규모야외기동훈련 획책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괴뢰륙군 30사단이 20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 양주와 파주지역에서 대규모의 야외기동훈련을 감행하려고 획책하고있다.

괴뢰호전광들은 침략적인 군사연습에 수많은 병력과 땅크, 장갑차를 비롯한 선제공격장비들을 투입하고 실탄사격훈련까지 벌리려 하고있다. 온 남녘땅을 무대로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대대적으로 강행되고있는 속에 괴뢰호전광들은 최전연지역들에서의 군사연습에 광란적으로 매달리며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고 날뛰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민심을 등진 반역《정권》퇴진하라

인권의 황량한 무덤, 숨막히는 독재사회(3)

반인민적악정이 빚어낸 실업과 빈궁

《국민행복시대》를 떠벌이며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은 현 괴뢰집권세력은 인민들의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짓밟는 악정에 매달림으로써 남조선을 실업과 빈궁의 거대한 지옥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남조선을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로 전락시킨 반역패당의 반인권적범죄중의 하나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지금도 현 집권자가 《국민행복을 최우선과제로 내세우는 경제정책》에 대해 입이 닳도록 떠벌이던것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하지만 괴뢰패당은 그처럼 요란하게 광고하던 《경제민주화》와 《맞춤형고용복지》공약을 헌신짝처럼 줴던지고 로동자들의 등껍질을 벗겨 재벌들과 기업주들의 배를 불리여주는데만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보수당국은 그 무슨 《기업들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이니, 《경기활성화》니 하는 나발을 불어대며 《규제완화》의 간판밑에 기업주들에게 제 마음대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할 권한을 주었으며 로동시장구조개혁의 간판밑에 철도, 전력, 의료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 령세기업들을 대기업의 먹이감으로 섬겨바치였다. 이로 하여 오늘 남조선에서 절대다수 근로대중의 삶은 그야말로 벼랑턱으로 내몰리고있다. 남조선에서는 현 《정권》의 등장이후 불과 1년사이에 일자리를 잃은 완전실업자가 대폭 늘어났으며 하루 또는 몇개월씩 고용되여 일하며 낮은 임금을 받는 반실업자는 1 000만명을 가까이 하고있다.

한편 자료에 의하면 비정규직로동자의 규모는 852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게다가 당국의 《규제완화》조치로 말미암아 비정규직이 나날이 확대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정규직로동자들도 언제 비정규직으로 전락될지 모르는 불안속에 시달리고있는 형편이다.

최근 남조선의 한 대학교수가 발표한 론문은 비정규직문제의 심각성을 다시한번 절감하게 한다. 론문은 로동시장에 처음 진입한 15살이상 35살미만의 정규직과 비정규직로동자들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놀랍게도 부모가 비정규직로동자이면 자식들까지도 비정규직의 멍에를 쓰게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썼다. 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인가. 오죽했으면 남조선의 한 언론이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든 늪과 같은 비정규직. 나아질 가망이 없는 많은 비정규직로동자들이 희망을 잃어가고있다.》라고 개탄했겠는가.

오늘 남조선에서 삶의 기초가 없이 그날그날을 연명해가는 절대빈곤층은 570여만명에 달하고있으며 아무리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은 250만명을 넘어서고있다.

청년실업문제는 더욱 기가 막힌다. 현 괴뢰집권자는 청년실업문제를 최우선과제로 해결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그것은 입에 침발린 나발이였다. 보도에 의하면 현 《정권》의 등장이후 남조선에서 20대청년들의 일자리는 4만여개, 30대청년들의 일자리는 2만여개나 줄어들었으며 그로 하여 청년실업사태는 그야말로 최악에 이르렀다.

괴뢰들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에 서울지역에서의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악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특히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수많은 청년들이 실업자로 전락되고있어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되고있다. 오죽 청년실업사태가 심각하면 20대의 90%는 백수(직업없는 사람)라는 뜻에서 《이구백》, 장기간 취직을 못하고있는 대학졸업생에 대해서는 《장미족》, 31살이 되면 취직할수 없다는데서 《삼일절》, 20살도 되기전에 직장에서 쫓겨난다는 뜻에서 《이퇴백》이라는 말이 류행어로 나돌겠는가.

하기에 남조선의 절대다수 청년들은 사회현실에 대한 불안, 불만, 불신만이 가득찬 《3불세대》로, 심각한 생활난으로 련애, 결혼, 해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로도 모자라 집을 포기하고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5포세대》, 《삶포세대》로 전락되고있다. 희망의 나래를 마음껏 펴야 할 수많은 청년들이 취직의 소박한 꿈마저 잃은채 《그냥 놀고먹는 쉬는 인구》, 모든것을 자포자기한 《청년백수》가 되여 거리를 방황하는 비참한 광경을 두고 남조선의 한 언론은 《그들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뼈아픈 자화상》이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녀성들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녀성로동자의 3분의 2가 비정규직로동자이며 70%가 로동조건이 매우 한심한 분야에서 일하고있다. 녀성로동자들은 남성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도 남성들이 받는 로임의 절반밖에 안되는 돈을 받고있다. 《로동력손실방지》의 간판밑에 녀성로동자들에게 순번제로 돌아가며 아이를 낳을것을 강요하는 비인간적대우로 하여 많은 녀성로동자들이 하는수없이 직업을 포기하고있다. 남조선에서 빈곤한 녀성들의 비률이 전체 녀성의 60%로서 남성보다 2배나 많다는 사실은 녀성들의 비참한 처지를 그대로 말해주고있다.

인간의 존엄과 생존의 권리를 무참히 유린하는 괴뢰당국의 반인민적악정을 더는 참고 견딜수 없기에 지금 남조선도처에서는 《못살겠다.》, 《갈아엎자.》는 분노의 함성이 매일같이 터져나오고 로동자들의 반《정부》투쟁은 사회 각계에로 확대되며 전지역을 뒤흔들고있다. 도처에서 당국의 반인민적악정을 반대하는 로동자들의 시위투쟁이 격렬하게 전개되고있으며 그것은 반역 《정권》퇴진투쟁에로 이어지고있다.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외면하고 한줌도 못되는 특권족속들의 리익을 대변하며 온 남조선사회를 사람 못살 인간생지옥으로, 인권의 황량한 페허로 전락시킨 살인 《정권》에 대한 분노와 항거의 목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다.

《투쟁만이 살길이다.》《반역 〈정권〉 퇴진하라.》

본사기자 은 정 철

폭압은 필연코 민중의 저항을 불러온다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14일 사설을 통해 괴뢰패당의 민주주의말살책동을 규탄하였다.

사설은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해 들어와서도 계속되는 현 집권자와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는 삐라살포투쟁에 대응하라는 폭압지령을 경찰서들에 내려보낸데 대해 언급하였다.

지령에는 건물옥상에서 현 집권자나 《정부》를 비난하는 삐라를 뿌리거나 건물벽 등에 글을 썼을 때에는 《건조물침입 및 재산파괴》혐의로 체포하며 길가에서 삐라를 뿌리는 경우 《명예훼손 또는 모욕》혐의를 적용하고 혐의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으로 구속하라는 내용이 상세히 밝혀져있다고 폭로하였다.

북을 겨냥한 삐라살포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니,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다.》느니 뭐니 하며 비호하던것과 비교해보면 참으로 대조적이라고 단죄하였다.

지금 경찰의 태도는 온갖 법조항을 동원하여 어떻게든 국민의 입과 귀를 막아보려는것이라고 규탄하였다.

력사적으로 독재 《정권》은 민중의 거세찬 항쟁에 의해 무너졌다고 하면서 폭압은 필연코 민중의 저항을 불러온다고 주장하였다.

당국이 력사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면 파멸적후과를 가져온다고 하면서 민중이 또다시 들고일어나 행동할 시각이 다가오고있다고 사설은 강조하였다.

선거개입행위의 주모자처벌을 요구

남조선의 진보련대와 청년련대가 괴뢰정보원을 비롯한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선거개입행위를 지휘한 주모자인 리명박역도의 구속을 요구하여 15일 서울 중구에서 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전 정보원원장 원세훈이 유죄판결을 받고 구속됨으로써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가 3.15와 마찬가지로 관권부정선거였다는것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비난하였다.

《정보원법》에 의하면 원장은 집권자의 지휘와 감독에 따른다고 명시되여있으므로 원세훈의 선거개입이 확인된 이상 이를 총지휘, 감독한 리명박은 주모자라고 규탄하였다.

오늘은 리승만을 꺼꾸러뜨린 계기가 되였던 3.15부정선거가 있은 때로부터 55년이 되는 날이라고 하면서 정보원의 불법선거개입에 대해 엄정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현 집권자가 정보원의 선거개입은 사실이 아니라고 단언하였는데 이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도 《대통령》선거개입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주모자를 처벌할것을 요구하였다.

집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리명박의 죄행을 고발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황당한 거짓말로 인류를 모독하는 범죄적망동

미국의 백악관주인이 뻔뻔스럽게 《비핵세계》타령을 계속 늘어놓고있다.

최근 오바마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 효력을 발생한지 45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그 무슨 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 그는 《모든 나라들이 핵무기없는 세계를 건설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더욱 강화하는데 나설것을 호소한다.》느니 뭐니 하고 횡설수설하였다.

역겨운 노죽이라기보다 파렴치, 철면피의 극치라고 해야 할것이다.

지구상에 핵무기가 출현한 때부터 비핵세계건설은 인류의 간절한 념원으로, 공동목표로 되여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념원, 그 목표는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누구때문인가. 바로 미국때문이다.

오늘의 현실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오바마정권이 출현한 후 《핵무기없는 세계》건설을 광고하면서 2010년에 로씨야와 새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을 체결한 미국은 7년후에 로미의 전략핵탄두가 각기 1 550개정도 남게 될것이라고 떠들었다. 지금 미국의 핵탄두수는 4 500개정도로 알려져있다. 2017년이면 전략핵탄두축감목표를 달성하기로 공약한 해가 된다.

과연 목표달성이 가능한가.

2009년 9월말 미국의 핵탄두수는 5 113개였다. 그런데 2013년 9월 시점에서 미국이 보유하고있는 핵탄두수는 4 804개였다. 결국 미국이 4년동안에 줄인 핵탄두수는 겨우 309개였다. 그후 또다시 줄인 핵탄두수 역시 300여개이다. 그러니 이제 남은 2년동안에 미국이 2 900개가 넘는 핵탄두를 줄인다는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하다.

미국의 《핵군축》노력을 초보적인 산수적계산방법으로 따져놓고보아도 오바마가 떠드는 《핵무기없는 세계》건설구상의 허황성을 똑똑히 알수 있다.

미국의 핵정책은 명백히 핵무기현대화와 핵전쟁태세완비에 목적을 두고있다.

오바마정권은 로씨야와 새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을 체결한 후 얼마 안있어 핵무기현대화에 10년동안 수백억US$를 지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실은 오바마정권이 추진해온 《핵군축》이 전적으로 핵무기현대화에 복종하는것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은 수명이 다된 핵무기들만을 골라 페기하면서 그것을 《핵군축》의 귀맛좋은 말로 미화분식하고있다.

그 기만적인 간판마저 우크라이나사태를 계기로 완전히 집어던졌다.

미국은 로씨야에 비한 핵우세를 차지하려고 핵무기현대화에 발광적으로 달라붙고있다.

최근에 미륙군의 한 장성이 미국의 핵무기공장들은 쉬지 않고 돌아가고있다고 실토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핵무기현대화를 포기하였다는 주장은 그 현대화의 주기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한데서 나오는 소리이며 미국은 현존 낡은 핵무기를 끼고앉아있는것이 아니라 그를 현대화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핵억제력의 수준을 가늠하고있는중에 있다고 뻐젓이 되까렸다.

미국이 인류의 현대문명을 한순간에 석기시대로 되돌려세울수 있는 방대한 량의 핵무기를 비축해놓고도 모자라 또다시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며 핵무기를 현대화하고있는것은 절대로 수수방관할수 없는 반인륜범죄행위이다.

핵무기현대화에 발광하는 미국의 책동으로 하여 핵무기없는 세계건설은 더욱 더 멀어지고있다. 외신들속에서 세계가 핵무기가 더 늘어나는 시대에 직면하고있다는 주장들이 울려나오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얼마전 한 외신이 보도한데 의하면 미국의 한 재판소가 핵군축공약을 리행하지 않는 미국에 대한 마샬군도의 기소를 기각시켰다. 기각리유는 핵군축에 대한 미국의 불리행으로 인한 손해가 리론적인것이고 핵군축으로 마샬군도의 손해가 보상되는것은 아니라는것이다.

지난해 4월 마샬군도는 미국의 한 재판소와 헤그국제재판소에 핵군축공약을 리행하지 않는 미국을 기소하였었다.

현실은 이렇다. 오바마는 미국이 다그치는 핵무기현대화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시하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들더러 《핵무기없는 세계를 건설할 공동의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떠들어대고있다. 렴치가 티끌만큼도 없는자의 망발이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약화시키고 위험에 빠뜨린것도 미국이다.

이스라엘이 많은 핵무기를 가지게 된것도 미국이 그 기술을 전파하면서 음으로양으로 지원묵인해주었기때문이다. 그때에 벌써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은 유명무실해졌다.

비핵국가들을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게 되여있는 조약의 정신을 끊임없이 위반한것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우리 나라는 오래동안 미국의 핵공갈속에서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협당하며 살아왔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은 미국의 핵위협공갈을 막는데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였을뿐아니라 오히려 우리에 대한 미국의 주권침해행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되였다.

미국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궤변을 다시금 들고나오고있는것은 비핵국가들의 목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라는 올가미로 바싹 조여 저들이 마음놓고 핵위협공갈을 일삼는 핵패권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미국은 70년전에 핵무기를 사용한 전적을 가지고있는 범죄국이다. 19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핵폭탄들을 떨구어 두 도시를 한순간에 방사능먼지만이 흩날리는 죽음의 페허지대로 만들어놓은 그 죄행을 세계인민들은 치를떨며 두고두고 전하고있다.

지금 핵무기현대화에 발광하고있는 미국이 전인류를 방사능먼지속에 빠뜨릴 핵전쟁을 도발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

미국의 핵무기현대화를 위해 앞장서서 날뛰고있는 오바마가 《노벨평화상》수상자랍시고 우쭐렁거리고있는것은 세계가 개탄할 일이다.

오바마는 대통령으로 집권한지 1년도 못되여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미국력사에도 전례가 없는 일이였다.

오바마가 평화를 위해 특별한 공적을 세운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세계에다 대고 《핵무기없는 세계》를 건설하겠다고 휜소리를 친것이 고작이였다.

제2차 세계대전종식후 력대 미국대통령들은 모두 랭전확대와 세계제패야망실현을 위한 구상과 정책들만 내놓아 전인류를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군 하였다. 레간의 《별세계전쟁》계획이나 부쉬 2세의 《미국의 새 세기》구상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그런데 유독 오바마만은 그와 전혀 반대되는 구상을 내놓고 요란하게 선전하였다. 이렇게 세치 혀끝을 기만적으로 놀린 덕으로 《노벨평화상》을 따냈다.

오바마에게 《노벨평화상》을 준것에 대해 다른 나라들에서 노벨상위원회의 일부 사람들이 미국과 오바마에게 아첨하는 방식이 역겹다는 비난이 공공연히 울려나왔다. 기만과 변신에 있어서 오바마를 찜쪄먹을 미국대통령은 지난 시기에는 전혀 없었다.

문제는 오바마가 더이상 세계를 기만할수 없게 되여있다는데 있다.

세상사람들은 오바마가 미친듯이 부르짖는 《핵무기없는 세계》건설타령을 개짖는 소리처럼 듣고있다.

비핵세계건설을 깨끗이 망쳐놓은 오바마가 《노벨평화상》수상자라는것은 전혀 당치않다.

오바마는 《핵무기없는 세계》건설을 계속 줴치며 제 추악한 낯짝에 흙칠을 할것이 아니라 황당한 거짓말로 타먹은 《노벨평화상》을 스스로 내놓는것이 좋을것이다.

리 경 수

새 사회건설에 관한 세계정당들의 제19차 토론회

메 히 꼬 에 서 진 행

새 사회건설에 관한 세계정당들의 제19차 토론회가 12일부터 14일까지 메히꼬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40여개 나라의 100여개 정당, 단체대표단들과 대표들, 메히꼬로동당 지도부성원들과 산하 조직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메히꼬의 여러 정당 지도자들과 국회의원들, 이 나라 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메히꼬 국기게양 및 국가주악으로 시작된 토론회에서는 먼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나라 정당들의 축전이 소개되였다.

토론회에서는 메히꼬로동당 전국지도자 알베르또 아나야 구띠에레스가 개막연설을 하였다.

그는 메히꼬로동당과 조선로동당의 공동발기로 1997년부터 해마다 진행되고있는 새 사회건설에 관한 세계정당들의 토론회는 오늘날 세계 진보정당들의 대회합으로 확대발전하고있다고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그대로 이어나가시는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강위력한 사회주의국가건설을 적극 추진하고계신다. 그이께서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형제적조선인민의 투쟁을 이끄시는 고귀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시기를 축원한다. 이어 《주권국가들의 새 사회건설계획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 새로운 형태의 국가위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공세에 대처한 주권국가들의 반공격, 새 사회건설계획》, 《세계평화과정》 등의 의제로 우리 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 정당대표들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들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정치, 경제, 군사적공세와 전복기도를 규탄하고 국가 및 인민정권건설을 위한 진보정당, 단체들의 활동을 평가하였으며 앞으로의 과업과 방도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최근 세계도처에서 미국과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 지배와 간섭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 끊임없는 분쟁과 전쟁으로 파괴와 대량살륙이 조장되고있는데 대하여 폭로하고 이를 당장 중지시킬것을 촉구하였다.

벨라루씨공산당, 뻬루공산당(붉은 조국) 등 여러 나라의 정당대표들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대조선압살책동에 대처하여 우리 당과 인민이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사회주의위업을 굳건히 수호해나가고있는데 대하여 찬양하고 강성국가건설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굳은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꾸바,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나라들의 집권당들과 인민들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며 일부 나라들의 내정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저지시킬것을 촉구하는 결의들이 채택되였다. 또한 전세계 공산당, 로동당, 진보정당들과 인민들에게 조선해방 70돐과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국제적인 대정치축전으로 성대히 맞이할것을 전세계 공산당, 로동당, 진보정당들과 인민들에게 열렬히 호소한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강성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고있는 사회주의조선은 오늘 자주적인 새 사회건설을 지향하는 세계 진보정당들과 인민들에게 커다란 신심과 고무를 안겨주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올해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력사에 특기할 조선로동당창건 70돐과 조선해방 70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조선해방과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김정은동지는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시고 승리에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오늘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으며 력사적기념일들을 맞는 뜻깊은 올해를 위대한 승리의 해,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총공격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조선혁명과 인류자주위업실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면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돐과 조선해방 70돐을 국제적인 대정치축전으로 성대히 맞이할것을 전세계 공산당, 로동당, 진보정당들과 인민들에게 열렬히 호소한다.

【조선중앙통신】

세계기상의 날을 맞으며

몇세기전까지만 하여도 사람들은 가물과 폭우, 태풍을 비롯한 자연재해를 그 어떤 알지 못할 신비스러운 존재의 조화로 여기면서 숙명적인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자연을 개조하는 인간의 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사람들은 점차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였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정확한 일기예보와 장기간의 기후상태에 대한 예측결과를 제공해줄것을 요구하였다.

세계기상기구는 이러한 시대적요구와 국제적인 협조와 련계속에서만 원만히 실현될수 있는 기상사업의 특성으로부터 출발하여 1950년 3월 23일에 창립되였다.

세계기상기구는 자연재해로부터 사람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기상사업을 적극 발전시키기 위해 3월 23일을 세계기상의 날로 제정하고 해마다 기념하고있다.

해마다 이날에 즈음하여 세계기상기구는 인간생활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는 기상문제 특히 매 시기 이 분야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을 주제로 설정하고 그에 따르는 다양한 행사와 활동들을 진행하고있다.

현재 이 기구에는 180여개의 나라들이 가입하였다.

올해에 세계기상기구는 국제사회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필요한 기후지식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 세계기상의 날에 대한 주제를 《기후활동을 위한 기후지식》으로 정하고 기념하고있다.

1975년에 세계기상기구에 가입한 우리 나라에서는 당과 국가의 커다란 관심속에 기상수문국에서의 기상관측과 예보의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수준이 날로 발전하고있다.

이와 함께 세계 여러 나라와 세계기상기구와의 국제적협조를 강화하면서 최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세계기상의 날을 맞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고있다.

김 철 룡

유럽동맹의 대미추종행위 비난

로씨야국가회의 국제문제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13일 따쓰통신과의 회견에서 유럽동맹의 대미추종행위를 비난하였다.

그는 유럽동맹이 로씨야공민들에 대한 제재기한을 연장한것은 철저히 미국의 압력에 따른것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제재는 절대로 정당화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유엔인권보고서 배격

이란외무성 대변인이 14일 이르나통신과의 회견에서 자기 나라를 걸고든 유엔인권보고서를 배격하였다. 유엔특별보고담당관이 자기 나라의 인권상황을 비방중상하는 보고서를 발표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이 편견적이고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일관되여있으며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추구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그는 이란은 유엔인권리사회의 활동과 립장에 대해 의문시하지 않을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스라엘의 허위보도 단죄

팔레스티나이슬람교항쟁운동(하마스) 대변인이 9일 이스라엘의 허위보도를 배격하였다. 최근 이스라엘의 한 인터네트신문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사이에 그 무슨 5년간의 《정화협정》이 체결되였다고 보도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를 무근거한 날조로 일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협정》이 하마스의 거듭되는 요청에 의해 이룩된것이라고 떠들어대고있다고 그는 비난하였다.

변모되는 파키스탄

자주적인 새 사회건설을 지향하는 파키스탄인민은 오늘 민족적명절인 파키스탄의 날을 뜻깊게 기념하고있다.

나라의 정치적안정을 이룩하며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파키스탄인민의 투쟁에서는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파키스탄경제에서 기본은 농업이다. 인구의 대부분이 이 부문에 종사하고있다. 식량의 자급자족을 기본목표로 내세우고있는 파키스탄에서는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받아들이고 영농방법을 개선하는 등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조치들이 적극 취해지고있다.

파키스탄의 기후는 기온이 높고 메마른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농업생산을 늘이자면 물원천을 잘 리용하는것이 중요하다. 이 나라에서는 언제와 운하를 건설하여 지난 시기 메말라 버림받던 많은 땅을 좋은 부침땅으로 개간하였다.

정부의 시책과 농업생산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최근년간 이 나라에서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되고 주요농작물인 밀, 벼, 강냉이, 사탕수수, 목화 등의 생산량이 늘어나고있다.

파키스탄정부는 나라의 풍부한 자연부원을 적극 개발하여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에도 응당한 관심을 돌리고있다.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해 원자력발전소들을 건설하는것을 비롯하여 경제의 여러 분야들을 자체의 힘으로 발전시켜나가고있다.

2030년까지 11개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 광업과 식료, 방직, 전력, 기계, 원유정제 등 공업의 여러 분야에서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파키스탄은 대외적으로 뿔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고있으며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있다.

자주적이며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파키스탄인민의 투쟁은 좋은 결실을 맺게 될것이다.

김 수 진

일본에서 반핵집회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비루스감염증으로 초래될 경제적손실

서아프리카지역에서 에볼라비루스감염증으로 막대한 경제적손실이 초래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12일 유엔은 이 지역에서 현재 국경무역, 항공운수, 관광, 투자 등 여러 부문이 심각한 영향을 받아 2017년까지 년간 36억US$어치의 경제적손실을 입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을 태평양지역의 불안정한 요인으로 락인

로씨야국가회의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 알렉쎄이 뿌슈꼬브가 13일 따쓰통신과의 회견에서 미국을 태평양지역의 불안정한 요인으로 락인하였다.

그는 미국이 웰남당국에 로씨야무력의 캄란기지리용을 금지할것을 요구하였다는 미국무성 대변인의 발언을 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역안전의 위협에 대해 말한다면 태평양지역의 주요불안정요인은 미국자체이다. 미국은 이 지역에 많은 무력을 두고있다. 일본 하나만 놓고보더라도 그 병력수는 약 10만명에 달한다. 최근에 미국은 태평양지역에 추가병력을 파견하기 시작하였으며 2 500명의 해병대가 오스트랄리아의 북부에 배비되였다. 더우기 미국은 중국의 국경부근에서 정탐활동을 정기적으로 벌리고있다. 얼마전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충돌을 허용하지 말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매우 모순적이다. 그것은 미국이 무슨 근거로 중국의 해안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군사적충돌을 초래할수 있는 그런 군사활동을 하는지 잘 리해되지 않기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불안정요인이다.

그는 미국이 로씨야를 불안정요인이라고 하면서 이를 근거로 웰남당국에 그 무엇인가를 요구하려 하고있는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라고 강조하였다.

미국의 제재책동 규탄

남아메리카국가동맹 성원국들이 14일 공동선언을 발표하여 베네수엘라정부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철회할것을 미국에 요구하였다. 공동선언은 미국이 제재조치를 당장 취소하며 이 나라 정부와의 대화가능성을 검토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알바성원국들이 17일 긴급회의를 열고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제재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성원국들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정부 관리들에게 제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는 등 국가전복을 꾀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회의에서 연설한 꾸바국가리사회 위원장 라울 까스뜨로는 미국이 꾸바를 유혹하거나 매수할수 없듯이 베네수엘라를 위협할수 없으며 우리의 단결은 영원한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오늘의 세계

내부모순으로 가득찬 알륵과 갈등

미국내에서 민주, 공화량당사이의 알륵과 갈등이 고조되고있다. 얼마전 미공화당 상원의원 47명은 이란지도부에 보낸 편지에서 현재 이란과 6개 나라가 진행하는 핵협상이 타결된다고 하여도 다음기 미국대통령에 의해 파기될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것이 오바마를 축으로 하는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공화당이 앞으로 진행되게 될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다는것을 확정적으로 믿고 앞으로 서게 될 저들의 《정권》하에서는 이란과의 핵회담을 다 집어치우겠다는 소리이기때문이다.

현재 남은 오바마의 임기는 근 2년이다. 그런데 공화당이 벌써부터 이란에 저들이 미국정부를 대표하는것처럼 《경고》의 편지를 날렸으니 민주당으로서는 반발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산 사람놓고 판짜는 식의 처사에 민주당이 발끈할만도 하다.

민주당의 여러 상층인물들이 줄줄이 나서서 상원에 국가안보문제를 책임적으로 다룰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고 들이대기도 하였으며 미국 부대통령 죠세프 바이덴도 공화당의 상원의원들이 200년간에 걸친 전통을 무시하였다고 하면서 그것은 앞으로 미국대통령이 외국과 협상할수 있는 능력을 무너뜨리는것이라고 반박해나섰다.

말하자면 오바마가 대외행사를 할 때 직무는 대통령이지만 대통령대접을 받지 못할수 있다는것이다. 오바마의 처지가 가긍하게는 되였다.

공화당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무시한것은 그들대로의 타산이 있었던것이다. 그것은 지난해 11월에 미국에서 진행된 중간선거가 저들의 승리로 끝났으므로 다음해 11월에 진행될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소속 대통령후보가 승리하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는것이다.

미국은 2년에 한번씩 국회에서 선거를 치른다. 하원의원인 경우 임기가 2년이다. 하원은 2년마다 전체 의원수를 선출하고 상원의원은 임기가 6년이므로 2년에 한번씩 전체의 3분의 1을 선출한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선거가 4년에 한번씩 열리기때문에 지난해처럼 대통령선거가 진행되지 않는 해에 진행되는 국회선거를 중간선거라고 부른다. 중간선거는 정권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데서 하나의 주요한 계기점이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는 오바마가 이끄는 민주당이 공화당에 여지없이 대참패를 당하였다.

상원,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것으로 하여 오바마는 정부운영에서 공화당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그래도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선거된 때인 2008년에는 민주당이 상, 하원의 통제권을 모두 장악하여 정권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2010년부터는 하원의 다수를 공화당이 차지하였고 지난해 중간선거에서는 상원까지 모두 공화당이 차지한것으로 하여 정권운영에서 난관이 조성되게 되였던것이다.

앞으로 미국에서는 상, 하원을 모두 장악하여 국회를 틀어쥔 공화당이 승인해야만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이 통과되게 되여있다.

중간선거가 끝난 후 분석가들은 오바마가 공화당에 머리를 숙이고 빌붙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고 평하였다.

현재 오바마가 이끄는 미행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률은 매우 한심한 상태에 있다.

공화당은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후 오바마를 더욱 수세에 몰아넣으며 의료보험제도와 이민개혁조치 등 민주당이 내놓는 문제들에 대해 반대립장들을 취하군 하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언제 한번 미국의 정국이 조용한 날이 없었다. 공화당이 머리를 쳐들려 하자 민주당역시 가만있지 않고있다. 이번에 이란핵문제에서 나타난 사건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이번 공화당의 행동은 저들의 앞길에 제동을 거는것이라고 몰아대며 오래동안 끌어오던 이란핵문제의 최종적인 합의안을 이달안으로 만들어내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

그러나 협상은 민주당의 뜻대로 되지 않고있다.

이란은 어떤 경우에도 미국의 강도적요구에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립장이다.

한마디로 자국의 주권이 침해당하지 않는 조건에서 핵활동과 관련한 대화와 협상은 있지만 제재와 압력을 비롯한 위협공갈로는 그 무엇도 얻을것이 없다는것이 이란의 립장이다.

공화당의 비발치는 공격과 이란의 강경한 립장에 안팎으로 몰린 민주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있다. 오죽했으면 국무장관 케리까지도 이란과의 핵협상과 관련한 그 어떤 타결책도 이달말까지 끝낸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는 소리를 하겠는가.

이것이 바로 미국의 정치상이다. 당파세력들사이의 정치적야심과 권력싸움으로 하여 미국은 언제 한번 편안한 날이 없으며 정치적위기, 권력위기의 악순환을 겪고있다.

정치는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권력장악을 위해 서로 필요할때는 《친구》가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적수》가 되여 승냥이 본색그대로 서로 물고뜯는것이 바로 미국의 정치판국이다.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정치적위기는 해소되기 힘들것이다.

미국에서 정치세력들사이의 권력싸움은 끊임없이 계속될것이며 이로 하여 정국의 혼란은 언제 가도 가셔지지 않을것이다.

본사기자

군사쁠럭의 세력균형을 파괴하는 새로운 균렬

최근시기 나토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초조해하며 안절부절 못하고있다.

뛰르끼예가 로씨야를 비롯하여 아시아의 일부 나라들과 접근책을 모색하면서 관계를 밀접히 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얼마전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는 나토와 동떨어진 대외정책을 실시해가고있는 뛰르끼예에 대한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올해 로씨야가 우크라이나를 에돌아 뛰르끼예에 가스수송관을 부설하는 협정에 조인하게 된다고 전하였다. 그러면서 뛰르끼예정부가 서방의 제재를 무시하면서까지 낮은 가격으로 에네르기자원을 받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로씨야와 서방사이의 마찰을 리용한다고 분석하였다.

나토의 불안이 더욱 커진것은 또한 아시아의 한 나라로부터 수십억US$분의 반항공미싸일종합체를 구입하려는 뛰르끼예정부의 계획이라고 하면서 신문은 최근 뛰르끼예가 군사장비를 구입하는것이 미국과 나토의 유럽동맹국들에 있어서 커다란 위험을 조성한다는데 대하여 렬거하였다.

한편 신문은 로씨야가 뛰르끼예에 첫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해줄것을 계획하고있다는데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글이 얼핏 보기에는 뛰르끼예와 로씨야사이의 호상협조와 관련한 설명처럼 보이지만 그 내막은 저들의 품에서 떨어져나가려는 뛰르끼예의 단호한 행동에 미국주도하의 나토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이 나라를 경계하고있다는것을 시사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뛰르끼예가 로씨야와 가까와지는것은 미국에 있어서 반가운 일이 아니다.

2013년도에 뛰르끼예가 상해협조기구에 가입할것을 희망하였을 때에도 미국은 이를 못마땅해하면서 음으로양으로 책동하였다.

뛰르끼예는 아시아와 유럽의 교차점에 위치하고있는 나토성원국이다.

로씨야를 포위압박하고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려는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속심이다.

미국은 랭전의 유물인 나토를 아직까지도 걸어안고 로씨야를 견제하는데 써먹고있다.

최근년간 우크라이나사태를 코에 걸고 미국주도하의 나토가 로씨야를 대상으로 벌리는 군사적행동이 이를 잘 말해주고있다. 지난해 나토는 우크라이나사태와 관련하여 로씨야의 《위협》에 대해 운운하면서 나토안에 고도의 준비태세를 갖춘 신속반응무력을 창설하기로 합의하였다. 그에 따르면 기존나토무력이 사태발생이후 그 대응에 이르기까지 5일이상 걸렸다면 새로 내오는 신속반응무력은 지구상 임의의 지역에 2~5일안으로 전개하여 작전을 개시할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나토사무총장은 신속반응무력에는 공군과 해군, 특수무력의 지원하에 며칠내로 전개될수 있도록 준비를 갖춘 수천명규모의 지상무력이 포함될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 나토가 적절한 지휘통제쎈터를 내오고 장비와 물자들을 사전배치하며 신속전개연습들을 진행할것을 계획하고있다고 밝혔다.

한편으로 나토는 로씨야국경과 가까운 지역에서 화약내풍기는 군사연습을 대대적으로 벌려놓고있다. 지난해 8월말-9월초 미국주도의 나토무력이 유럽의 여러 지역들에서 벌려놓은 군사연습들이 그 단적실례이다. 9월 중순에는 《래피드 트라이든트 2014》로 명명된 미국주도의 군사훈련이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되여 가뜩이나 복잡한 이 나라의 정세를 더욱 악화시켰다. 얼마전에는 나토성원국들의 해군함선들이 흑해에 들어가 합동연습을 벌려놓았다.

전문가들은 최근시기 나토의 움직임은 로씨야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하면서 나토의 목적은 군사력을 확장하여 로씨야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함으로써 이 나라가 더이상 국제정세에 영향력을 행사할수 없게 하자는데 있다고 평하였다.

로씨야는 미국의 이러한 책동에 맞서 자기의 강경한 대응책으로 맞받아나가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로씨야는 2018년까지 유럽으로 가스를 수송하는 《남부흐름》가스수송관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본격적으로 내밀었다. 그러나 미국과 서방의 책동으로 커다란 장애를 받고 이를 실현할수 없게 되였다. 그러나 로씨야는 중도반단하지 않고 더욱 강경하게 행동하였다. 《남부흐름》가스수송관건설을 중단하는 대신 뛰르끼예에 대한 가스수출을 대폭 늘일것이라고 선포하였다. 이러한 속에 지난해말 뿌찐대통령이 뛰르끼예를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쌍방은 로씨야가스의 납입량을 몇배로 늘이는 문제, 로씨야남부에서 뛰르끼예로 뻗은 《푸른 흐름》가스수송관능력을 확대할데 대한 문제, 올해부터 뛰르끼예에 납입하는 가스가격을 6% 인하하는 문제 등에 대해 합의를 보았다. 또한 로씨야의 국영원자력회사 《로스아똠》이 2022년까지 뛰르끼예에 첫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나라들사이에 맺어지는 쌍무적협력관계로만 볼 문제가 아닌것이다.

로씨야대통령의 뛰르끼예방문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제재책동에 파렬구를 내는 심각한 타격으로 되였으며 군사쁠럭을 형성하고있는 미국주도하의 나토의 세력균형에 균렬이 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미국이 낡은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나토를 내몰아 지역의 패권을 차지해보려는 어리석은 망동은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을것이다.

본사기자 라 명 성

ㄱ-510462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